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일간) No. 569 1981년7월1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uly 18.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선생님, 成功 하십시오 다른 方法은 없읍니다

창을 들고 전쟁을 하던 시대나, 核미사일시대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올림픽처럼 참가의 의미나 찾는 사람에겐 패배만이 마련되어 있고, 인생은 역시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투쟁에 의해서 그 존재 양식이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삶의 방편으로 택한 직업 역시 처열한 전쟁이다。전쟁이라면 이유야 어쨌든 패배자를 위한 변명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는다。우리가 직업적 성공을 말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것도 바로 그 점이다。

生活속의 작은 知慧

가장 큰 효도는 敗北者되지 않는것

職業을 통해서만이 自己實現 가능

□父母의 所望

아무래도 결론부터 말해야 될것 같다。순서가 바뀌는 표현방식이 될지는 몰라도 결론이 분명할 땐 서론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아들 우위사상(優位思想)과 결부시켜서 오해할 사람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부모가 아들을 낳은 다음, 그 아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눈 감는 날까지 그 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장차는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더 잘하라는 소망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장차 사회에 나가 떳떳하고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라는 점일 것이다。

아들은 부모를 모신다는 동양사상에서 우러나온 것은 결단코 아니다。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부모를 모시지않는 것이 자연스런 서구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동양의 부모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부모는 늙으신 다음, 아들이 매일 저녁 찾아와서 무릎을 마주대고 대화를 나누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어깨를 두드려 드리는 것보다는 떨어져 살아서 허전한 일이 있더라도 자식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었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나 아들의 입장에서나 가장 소망스러운 효도는 사회적으로 패배자가 되지 않는것이다。부모는 딸에 대해서도 그렇다。딸에 대해서 비록 사회생활을 하지않고 가정에 들어 앉더라도 딸이 자기남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한 가정의 주인인 남자가 성공한다는것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가문을 한꺼번에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어버이가 성공하는것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성공을 배우면서 키가 큰다。

◇筆者 金在元씨

原稿모집

마음을 툭 터놓고 對話를 해봅시다。내가 겪은 소중한 體驗의 敎訓을 이웃에 전합시다。서로의 生活을 윤택케 해주기 위한 廣場이 여기에 있읍니다。이웃과 친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십시오。對話의 廣場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素材=제한없음
■張數=30장內外·筆者略歷
■보내실곳=서울鍾路區中學洞14 한국일보社 週刊한국部 部長席
■掲載分에 대해 所定 原稿料。原稿返納 책임지지 않음

출세주의는 남자가 지닌 호연지기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가? 남자가 한창 젊은 20대에 품는 야심은 사회적인 성공과는 다른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이다。남자가 지닌 야심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사회적 성공 그 자체와 직결된다。

남자는 자기 직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직업을 통해서만 자기실현이 가능하다。그리고 성공은 자기실현의, 그리고 자기 야심달성의 지름길이다。

누가 뒷전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출세를 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든지, 인간성의 마비현상이 뒤따른다든지 하는 소리는 패배주의를 옹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成功기회

더구나 대한민국사회에 있어선 이제 성공 이상의 영광이나 보람은 없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그것을 떠들고 다닌 성공학의 원흉으로서, 또 성공의 1급 세일즈맨을 자처하면서 사실은 자질구레한 장애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것은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허황된 논리로 시작되는 성공무용론이지만, 사실은 패배주의를 구가하려는 사람들의 궤변임을 서슴지 않고 말할수 있다。

가난한 사회, 성공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회에서는 풍류나 즐기고 살자는 주장, 명예나 부귀를 뜬 구름처럼 여기자는 주장도 실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고 있기에는 시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평균 GNP가 불과 100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쳐서 6만5천원정도)이던 시절이 있었다。바로 1963년이 그랬다。

그때라면 성공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의 논리가 통했다。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을수 있던 시절의 얘기다。

그러던것이 1977년에 9백65달러였다가 1978년에 마침내 1천달러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민1인당 평균GNP는 1천2백79달러가 되었다。(이상의 숫자는 경제기획원의 자료에 의한 것임)

5인가족이 빠듯하게 벌어도 1년평균 32만5천원정도 밖에 벌지 못하던 1963년으로부터 불과 15년만에 이루어진 숫자적 통계가, 우리나라 사회의 급속한 경제적인 대형화를 뒷받침한다。

1978년엔 5인가족 전부가 돈을 번다고 하면, 4백만원이 넘는 소득을 1년에 올릴수가 있었다。

15년만에 1,200%나 성장한 것은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회전체적인 성장속도에 있어서도 다른 사회가 흉내내기 어려운 성장이다。

언제나 사회는 개인보다는 빨리 발전한다。개인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사회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특히 한국의 사회는 앞의 숫자만 가지고 따져보아도 개인이 모방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다。

사회는 성공하고 있다。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지금 성공사회 속에서 살고있는 것이다。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직업에서 성공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職業的 승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성공함을 논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몇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공이 인간성 말살의 수단이라고 하는 수상한 의문의 제기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목표만을 놓고 뛰어가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달리고…。그러는 동안 우리의 인간성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실용주의로 변하지 않느냐고 하는, 약간은 낮은 소리로 말해야 할만큼 논리성이 결여된 의문이다。

음악을 애호하고 미술을 애호하는 생활이라든지, 전원을 가까이하는 생활이라든지, 책과 떨어지지않는 생활이라든지…그런 종류로 구별되는, 소위 문화생활이라고 하는것이 성공 없이 가능할 것인가를 그야말로 탁 털어놓고 얘기해 보자。

필하머니 악단의 연주를 감상하러 다닌다든지, 마음에 맞는 그림을 구하러 다닌다고 할 경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삶의 목적은 물론 그러한 정신문화를 즐기는데에 두어야 한다。성공은 그것 자체가 정신문화를 즐기는 목적이 될수는 없어도 훌륭한 수단인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정신적인 여유, 정신적인삶, 정신적인 생활태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헤집고 보면 역시 성공만이 그런 여유와 그런 삶과 그런 생활태도를 뒷받침한다는것을 긍정하는 진심이 숨어 있음을 보게된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는가?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다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생의 한 모퉁이를 돌때마다 각박한 투쟁이 따라야 하고 인생의 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성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려고 하지않는가?

그 성공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지런하게 살자든지, 지혜롭게 살자든지, 후회없이 살자든지 하는 온갖 공자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이 된다。

최근에 들어 몇몇 지상에 성공에 대한 몰이해한 이의, 아니 성공에 대한 서론부터의 오해를 대해야 한다는것은 필자처럼 성공을 전도사처럼 포교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남자의 직업적 성공과 약삭빠르기만한 출세주의를 혼동하고 있는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욱 가슴아픈것은 우리는 성공의 참된 의미를 알면서도 때로는 성공을 백안시하려는 이상한 취미에 빠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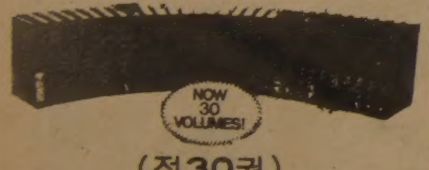
성공은 정직한 경기에서 얻진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성공은 남보다 많이 일하고, 남보다 많이 공부하고, 남보다 사회적인 기여를 크게 하는것이다。성공은 사나이의 위대한 야심을 달성하는 직업적인 승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성공학의 전도사로서 필자는 다시한번 어떻게 외칠수밖에 없다。

『성공하십시오。다른 방법은 없읍니다。』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스타☆미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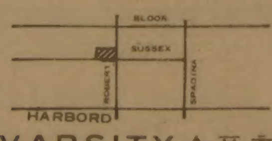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운동구점 개업

축구대회·특별세일

①어린이 축구화
가죽 19.99달러
합성가죽 13.99달러

②축구대회 : 단체유니폼 마춤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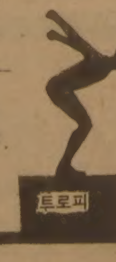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967-7304 이 건 영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㉛

金洪信 作
崔然石 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누나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엊저녁보다 훨씬 평온하고 정숙한 모습이었다. 화장얼룩과 눈물자국에서 나는 온주누나의 한을 읽을 수 있었다.

누나는 눈을 떴다. 겸연쩍게 웃었다.

『누나, 이제 정신 좀 났어?』

『으응. 내가 여기서 잤구나.』

『술먹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미안하다.』

『이젠 좀 어때?』

『조금은 후련하다. 네게 괜히 푸념만 했나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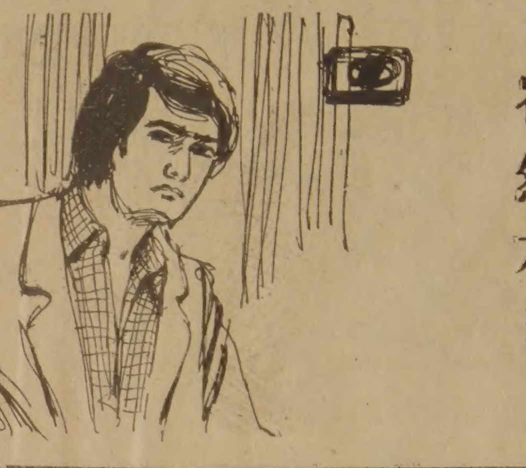
『얘기 잘해 줬어. 나는 그 사람한테 응어리가 많은 놈야.』

온주 누나는 내 응어리가 어떤것인지 알고 있었다. 누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나와 결혼한 성근이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지난줄거리**
>
> 첫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한 온주 누나는 총찬에게 하소연을 했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온주 누나를 배신한 남편의 술수는 너무 간교했다. 온주 누나는 간통죄로 날벼락을 맞게 되고 이혼까지 당하는 터무니 없는 고통을 당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누나는 총찬이의 옆에 흐트러진 채 잔다. 총찬은 누나를 훔치고 싶었지만 참는다. 그녀를 사랑한 것이 그의 순수한 진실이었기에.

『술 먹은 날 아침엔 해장국으로 풀어야 돼.』

우리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누나는 화장품으로 얼치기 세수를 했다. 문을 열고 나서자 하숙집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하숙방이지만 낯선 여자, 그것도 중년 여인과 밤샘을 했다는게 몰꽤한 모양이었다.

『누나예요. 누나, 우리 주인 아줌마셔.』

나는 정말 머쓱한 기분이 되었다. 누나도 겸연쩍은 눈길로 인사를 했다.

해장국을 한 그릇씩 비운 우리는 엊저녁에 못다 나눈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누나는 성근이와 가까운 여자의 주소와 환경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처음에 아파트 추첨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정관수술 증명을 해주었던 병원에 대해서도 아는데 까지 얘기를 털어놓았다.

『누나, 정말 결백한 거지?』

『내가 결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널 찾아올수 있었겠니.』

진지한 목소리였다. 결혼한 후에는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누나의 처녀 때 성격으로 미루어 거짓말을 할 여자는 아니었다.

『누나도 악착같이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겠어. 정관수술을 가짜로 했다는 병원 얘기며… 수술한 자리 보면 대충 얼마쯤 됐다는 걸 모르나?』

『나도 할 만큼은 해봤어. 꼬리가 잡히지 않아. 잡힐 만큼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지만.』

『뭐든 의심스럽거나 참고가 될만한게 있으면 죄다 얘기해 줘야돼. 조그만 꼬투리가 단서일 수 있으니까. 가령 가까운 친구 가운데 이번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누나에게 동정적인 그쪽 집안 식구가 있다거나 말야.』

『없어. 그 만큼 치밀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서 해볼 만큼 했지 왜 가만 있었겠니.』

『만약 내가 매듭을 잘 풀었다고 가정해서…누난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야.』

『생각 같아서는 생매장하고 싶지만. 우리 윤정이나 찾아오고, 내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농간에 넘어갔다는 거나 확실히 밝혀야겠지. 그런 사람은 사실 벌 받아도 싼 거야.』

사실이 누나 말대로라면 그런 사내는 다시 남자행세를 할 수 없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노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누나 원풀이 한번 해볼께.』

그러면서 나는 수표를 누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가 제. 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여자야. 이번 일 해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거야.』

『누나, 날 뭘로 보구 이래.』

『그 사람이 보통 아니라구 했잖니.』

『난 필요없어. 이거 가지고 어디 여행이나 하구 와. 그나 저나 하필 내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냐.』

사실 나는 그 점이 궁금했다. 돈을 내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몇번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어. 그래서 널 생각한 거지.』

『그럼 왜 이제사 연락했어.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연락 않구?』

『가뜩이나 이혼하자구 해대고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너라두 만났다간 대번에 날벼락이 칠텐데… 넌 그 심정 모른다. 한 여자가 시집 가서 살만하니까 이혼하자고 할 때…』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자백을 받을수도 없고
大卒 이상 미모 여성에 대한 편력조사 허탕치자 초조

온주 누나는 몸서리를 치듯 했다. 그럴 듯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더러 지상에 내 이름이 오를 때가 있었다. 가엾은 여고생의 등록금 소매치기 사건이나 골동품의 밀반출 사건때 내가 나서기 때문이었다.

『너만 믿고 갈께.』

온주 누나는 힘없이 일어섰다. 나는 그런 누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누나는 부끄러운듯 씩 웃고 말았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시험을 보면서 나는 줄기차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한 것인지를 생각했다. 아무리 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더러운 행위를 털어놓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다. 기다리다가는 증거만 더 묻히게 할수도 있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근이가 좋아한 여자를 찾아내는 방법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그 여자의 임신여부나 그 여자의 입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될만한 얘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근이가 자주 들락거리는 술집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온주 누나를 멀리 했기 때문에 손쉽게 여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주 들락거리는 술집에서 꾸는 것을 저질렀을 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성근이를 접대한 적은 있었지만 술집 접대부를 자신이 먼저 방비를 하기 때문에 알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나는 여러날 째 집요하게 성근이 뒤를 밟게 했다. 어딘가에 감춰둔 여자가 있을 거라는 누나의 의견에 내 마음이 굳혀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일수록 그의 주변이나 성근에게 눈치 채이지 않게 진행시켜야만 했다. 눈치 빠른 그가 감쪽같이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소문을 들어보기 위해 나는 선배에게 부탁을 했다. 선배는 그의 부하 직원으로 이태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비교적 상세히 성근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싶어 하는 것들은 하나도 알수가 없었다.

『형, 그럼 좋아한 여직원이 혹시 없었는지 좀 알아봐 줘요. 만약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하면요 몇년사이에 퇴직한 여직원, 적어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거나 괜찮은 집 딸들에 대해서 알아봐 줘요.』

선배는 앞뒤 안 가리는 내 성깔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연조차 묻지 않고 내게 여자의 명단을 넘겨 주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애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력이나 집안이 괜찮고 인물이 빼어난 여자들만은 골라 뒷조사를 시켰다.

예상 외로 내 작전은 자주 빗나가기만 했다. 아무 단서도 찾아내지 못한채 1주일이 흘러갔다. 도대체 알수없는 인물이었다. 그만큼 여러 각도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도 작은 구멍 한개를 뚫을 수가 없었다.

『형, 비상수단을 써보는 게 어때요?』

『무슨 비상수단이 있어.』

『애가 유괴된 것처럼 꾸며 보죠.』

『그건 안돼. 아무리 그 자식을 혼내줄 수가 없더라도 애를 잡는 놈이 될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뭐든 있을 거야.』

『형이 신경 쓰는게 너무 안타까와서 그래요.』

『그래도 난 비겁한 놈은 되기 싫어. 뭐든 곧 잡히겠지. 기다려 봐.』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갔다. 온주 누나는 몸이 달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너무 정직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보름 가까이 됐는데 너무 도덕군자처럼 산다 말예요. 뭔가 눈치 채건 아닐까요.』

내가 초조해 하는 것 이상 애들도 신경을 썼다.

『할 수 없다. 정면공격이다. 손 빠른 애들한테 수첩 빼오라구 해.』

내 명령이 떨어진 뒤 불과 두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의 수첩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나는 수첩을 사진복사한 뒤에 다시 원상대로 성근이의 호주머니 속에 넣도록 했다.

수첩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다각적인 작전을 짜나갔다.

우리는 이튿날 밤에 C동으로 달려갔다. 아파트 단지가 운집한 C동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근이의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54평짜리 고급아파트에 그렇게 감쪽같이 여자를 숨겨놓고 살 거라는 건 미처 짐작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근이는 수첩만 봐도 치밀한 사내였다. 은성상사라고 써있는 전화번호는 확인한 결과 은성이란 요정이었고 대하주식회사는 대하홀이었다.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누구냐고 확인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부장님께서 급히 이걸 전하라고 해서 왔읍니다. 부장님 모시고 있는 미스터 장입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찢어서 편지 내용을 읽는 여자의 눈빛에서 나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실감이 났다. 물론 편지는 내가 타이프를 쳐서 만든 가짜였다.

『다른 말씀 없으셨나요?』

상상한 것보다 훨씬 세련된 용모였다.

『편지에도 쓰셨듯이 절대 전화나 다른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하셨읍니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시면 저보고 찾아다 드리라고 했읍니다.』

나는 이렇게 능청을 떨었다.

『일이 뭐 잘못됐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다른 말씀은 일체 드리지 말라고 했읍니다. 걱정하신다고요. 대신 저보고 편히 모셔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라고 했읍니다.』

『얘기해 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情婦집에 가짜편지보내 두 아들과 함께 사는걸 확인
"하나님 이땅에 저사내보다 더 악한 사내도 있읍니까"

『……』

나는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코피를 끓여 오고 옆에 앉아 애원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약해진척 이렇게 말했다.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나봐요. 그 여자가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진 모양이에요. 부장님이 만약 정관수술을 엉터리로 한 뒤에 지난번에 한 것처럼 몰래 했다는 게 발각되거나 사모님이 기르시는 애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애하고 사모님을 숨어 계시라는 거죠.』

『그 여자가 그렇게 질긴가봐요. 위자료를 준다구 해도 뻗대고 그러드니…어떻게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에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나는 아파트에 앉아서 능청스럽게 이성근 부장의 심복부하처럼 굴어서 몇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캐낼 수있었다.

온주 누나의 짐작대로였다. 성근이는 여자에게서 아들 두명을 얻었고 아파트 추첨 때문에 뗀 증명서는 가짜였다는게 판명되었다. 또 온주 누나를 임신시킨 후에 몰래 정관수술을 했다는 심증이 굳어진 셈이었다.

내 교묘한 수단에 휘말린 여자는 만나게 된 동기부터 지금까지 몰래 살아온 고통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이제 떳떳하게 사나보다 싶었는데. 우린 사랑하면서도 이런 고통을 겪어요. 미스터 장은 결혼 안 해봐서 우리 맘 잘 모를 거에요.

그인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 분이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실 거예요. 가끔 부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곤 해요.』

나는 가능한한 맞장구를 쳐서 한가지 사실이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이제 그만 나가시죠.』

나는 여자를 안내하고 아파트에서 내려왔다.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여자와 이부장의 아들을 태우고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내 작전대로 일단 성사가 된 셈이었다. 여자는 내 치밀한 작전대로 움직여 주었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서울 근교의 호텔에 짐을 푼 여자는 내게 소식 자주 줄것을 당부했다.

온주 누나는 내가 낚아올린 얘기를 듣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억울한 건 풀어지게 됐어. 이젠 어떻게 재 출발 하느냐가 중요해.』

『그래, 열심히 살께.』

누나를 보낸 뒤에 나는 이튿날 이부장과의 신경전에서 솜씨를 보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서둘렀다.

하나님, 지켜 봤죠? 저런 사내가 있답니다. 아니 이 땅에 저런 사내보다 더 악랄한 사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련한 한 여자의 일생만 망친 게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한 여자로 전락시켜 놓고 저혼자만 신나게 살 궁리를 했읍니다.

하나님.

내일 나는 그 자자를 데려다 분이 풀릴 만큼 혼내줄 작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줘야 재미도 있는 거겠지만 이건 너무 했잖습니까. 두 눈 멀뚱히 뜨고 보고만 있어서야 됩니까.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제발 실력 발휘를 해주십쇼. 사람다운 사람들끼리 살 수 있게 말입니다. 조그만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인지상정이니까 못본 척하는 게 하나님다운 것이지만 저런 죄사한 사내들은 좀 벼락이라도 때려주십쇼.

성근이는 의젓한 동작으로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감옥에 가주셔야겠소. 가짜 정관수술 증명서 떼준 의사와 함께 말요.』

성근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내게 물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놀라는 기색이었다. 나는 책상을 내리쳤다. 서류뭉치가 굴러 떨어졌다.

『내가 장총찬이다. 너같은 놈 때려잡으러 다니는 장총찬이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혀졌다. 부장이 멱살 잡혀 끌려나가는 걸 말리려 들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새끼가 즈이 마누라를 부정한 여자라고 조작해서 감옥에 넣은 사내입니다. 정관수술을 가짜로 해줬다고 자백한 의사가 있습니다. 또 숨겨놓은 여자가 아들을 두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54평짜리 아파트도 사줬구요. 이 회사 경리장부를 한번 정밀 검사해 보십시오.』

나는 되는대로 큰소리를 치고 사내를 끌고 나왔다.

경찰서에 넘길 사내를 때릴 수가 없었다. 웬만큼 마음이 넓은 척하던 나도 이번만은 경찰에 넘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전처럼 따끔한 맛을 보여줘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 불쌍한 온주 누나의 피멍을 벗겨주기 위해선 사내의 죄를·법정에서 벗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의 의사도 자신의 위증을 인정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다.

성질대로 하자면 경찰에 인계하기 전에 실컷 두들겨 패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온주 누나에 대한 복수심만은 아니었다. 내 어렸을 때의 감정도 포함된 것이었다.

한 여자의 단꿈을 다 깨뜨리고 순재하자 그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는 철면피한, 나는 울분을 삭이며 그를 경찰에 넘겼다.

조사가 끝나자 누나는 명예를 그 억울한 죄명을 공개적으로 벗게 되었다. 신문과 방송으로 성근이의 치졸한 죄악상이 공개되었고 회사에서는 그의 공금 유용과 횡령을 밝혀내었다. 또한 가엾은 여자가 곤경을 당하는데도 팔짱까지 [illegible] 신분과 위신을 내세워 정관수술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시술했다는 의사도 구속되었다.

성근이의 재산은 거의 모두 온주 누나에게 돌아왔다. 일부는 회사에 반납했고 또 일부는 성근이에게 속아 살아온 여자에게 주었다.

『윤정이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애들을 내가 맡아 키우기로 했다. 내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시킬 거야.』

온주 누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근이를 믿고 살던 젊은 여자는 애들을 고아원에 맡기겠다고 했다. 온주 누나가 그 애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을 나는 기쁘게 찬성했다.

『그러다 데려갈 남자가 없으면 어쩌려고. 자신 있어?』

『그럼 혼자 살지 머. 있는 재산으로 남 돕는 사업이나 찾아보겠어. 네가 좀 도와줘.』

온주 누나와 나는 밤늦게까지 지난 얘기만 했다. 내게 미치도록 아름다왔던 과거를 쉼없이 우리는 쏟아놓았다.

〈다음호에 계속〉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㉜

金洪信 作
崔然石 畫

하숙집을 나와 은주 누나네 집으로 짐을 옮기겠다고 하자 다혜는 펄쩍 뛰었다.

「하숙비가 없어, 뭐가 없어. 편하게 학교앞 두고 왜 멀리서 다니려고 해. 꼭 누나 신세를 져야 돼.」

다혜는 곱지않게 말했다. 내가 은주 누나에게 얹혀 사는게 싫은 모양이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은주 누나를 사랑했었다고 털어놓은 것을 다혜는 잊지않고 있었다.

「그게 아니고 좀 편할수 있을것 같아서 말야.」

「뭐가 편해.」

「아무래도 낫잖겠어.」

「그렇게 편하면 평생 그 집에서 살아봐. 얼마나 편한지.」

「그러지 마.」

나는 다혜의 질투를 달게 받았다. 나를 좋아한다는 증거를 보고있는 느낌이었다. 은주 누나한테 얹혀 있으면 하숙비도 하숙비려니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혜는 요즘들어 어딘지 모르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공박을 했다.

지난줄거리

간교한 사내의 치졸한 죄악상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수없이 소매치기를 동원해 수첩을 빼내어 감추어둔 여자를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사내의 조작극을 차례차례 풀어나갔다. 사내는 비정한 의사와 함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은주 누나는 사내의 감춰둔 아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켰다. 종찬은 오랜만에 누나의 팔을 베고 평화롭게 잠을 잤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뭔가 숨기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다혜 몰래 애인이라도 만든 줄 아니?」

「누가 알아?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도 만났겠다, 그 집으로 아예 들어가겠다, 얼마나 좋겠어.」

「차암, 다혜가 그렇게 소갈머리없이 나올 줄 몰랐다.」

「속 넓은 여자 찾아보지 그래.」

「생각해봐. 하숙집은 얼마나 불편한지 알잖아. 그렇지만 누나 집은 아무때도 내 집같고 시간제약도 안 받잖아. 다혜도 맘놓고 다닐 수 있잖아.」

「내가 왜 가?」

다혜는 투정을 부렸다. 나는 그런 다혜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다혜도 질투하니?」

「질투, 질투같은 소리하네.」

「그럼 왜 그래?」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생각해봐. 뭔가 숨기고 있는 사내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야. 믿는 게 바보지.」

「뭘 못믿게 했다고 그래.」

「증발을 한두번 했어? 어디 갔다왔단 말 한번이라도 했어? 그전엔 어디 간다.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었잖아. 난 뭐 바본 줄 알아. 눈치 없는 사람인줄 알면 오해야. 여자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 들었어.」

「누가 그 따위 소릴 해?」

「알만한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싶었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옛날 애인네 집으로 들어간다 이거였군. 잘해봐. 축하해 줄게.」

「차암, 이거야 원.」

나는 별로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다혜 몰래 은주 누나 건과 미나사건을 해결하려 뛰어다닌 것에 적당한 변명거리가 없었다.

「이제 졸업논문도 준비해야하고, 막판 아냐. 여태 엉터리로 다녔으니까 마지막 정리라도 잘 해야지 않겠니. 그래서 누나네 집으로 들어갈 궁리를 한거야. 그러니까 상의하는 거 아냐.」

「언제 상의하고 그랬나 머. 하고 싶은대로 해. 아무도 말릴 사람 없으니까. 난 시골로 내려갈 거야.」

다혜는 내 손을 뿌리치고 뛰어갔다. 몇번이고 붙잡을 생각이었지만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누나네 집으로 이삿짐을 옮겼다. 다혜가 심통 부린 것은 쉽게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혜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질투를 느끼는 것일테니까 잊어버리기로 했다.

넓은 이층방 한개가 내 방이 되었다. 하숙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분위기였다. 책상과 책장도 새로 들여놓았고 침대와 옷장도 따로 준비해 주었다.

「공부나 열심히 해. 다른 생각말고.」

「글쎄, 그럴 생각였는데.」

「왜? 다혜가 뭐라고 그러든?」

「막무가내로 말리던데.」

「하긴 나라도 그랬겠다.」

「나보고 옛날 애인 찾아가는 거래.」

「후훗, 듣던중 반가운 소리구나.」

「같이 가자고 했다가 뺨 맞을 뻔했어.」

「내가 맞을 때도 있니?」

「다혜한테 만.」

「예, 나두 질투난다 머.」

「이뚜저루 나만 행복하게 생겼네.」

「여기 있으면서 성실하면 우리 애 공부나 좀 가르쳐 주고 그래라.」

「아르바이트 했다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래.」

"내가 눈치없는 사람인줄 알아? 질투같은 소리하네"

아직 愛人도 없다니 그럴줄알았으면 하나구해놓는걸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니?」

「싸우는 거 가르쳐 달라면 얼마든지 독종으로 만들어줄께.」

우리는 한집 살림을 시작했다. 누나는 내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에 안정감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남자없는 집안의 기둥같은 느낌을 누나는 받은 것 같았다.

「차라리 시집이나 가지 그래.」

「누가 날 데려가니.」

「뭐 그래. 애인도 하나 없었단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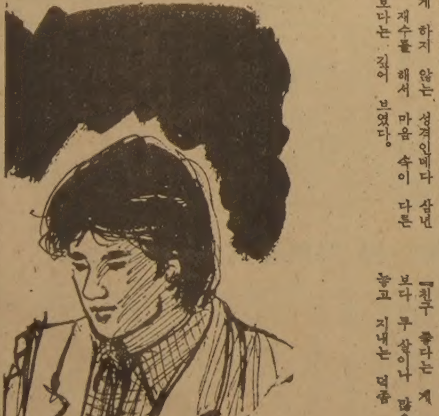
「글쎄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구해 놓을 걸.」

누나와 나는 짝 맞춘 사람들처럼 정겹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다혜 때문이었다. 다혜는 그날 헤어진 이후로 한번도 전화를 걸거나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몇번인가 전화를 걸었지만 다혜는 받지 않았다.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한번 쯤 집으로 찾아갈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내게 깊숙하게 남아 있었다. 다혜한테만은 지금까지 대체로 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지고 싶지 않았다. 다혜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생긴 여유이기도 했다.

방학 중에 잠깐 시골에 내려갔다 오는 일을 제외하곤 졸업시험과 논문준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깥 나들이를 하게 되면 자꾸 복잡하게 얽혀들 것 같아서 되도록 출입을 삼갈 생각이었다. 은주 누나도 그러길 바랐다. 저녁 무렵에 은주 누나와 테니스장에서 돌아왔다.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병구(炳九) 녀석이 추렷한 모습으로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같은 과 친구였다. 녀석도 나같은 촌놈이었지만 가정형편이 좋아서 씀씀이가 헤픈 녀석이었다. 학교 애들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내 성깔에 녀석만은 제 가깝게 지내는 터였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삼년이나 재수를 해서 마음 속이 다른 애들보다는 깊어 보였다.



「웬일야?」

내가 이렇게 물었다.

「뭐좀 한 얘기가 있어서 왔다.」

「집에 내려갈 생각이나 하지 뭐하러 돌아다니.」

「방학동안 쓸 돈 몽땅 날렸어.」

「지랄하구 다니니까 그렇지 임마.」

「지랄이나 하다 그렇게 됐음 좋겠다.」

「얼마나 털렸어. 부자가 뭘 따지고 그래.」

「오십사만원. 그깟 돈이 아까와서 그러는 게 아냐. 당한 게 억울해서. 그런 거지.」

「나 좀 쉬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너보다 두 살이나 많으면서 너랑 터놓고 지내는 덕좀 보자.」

귀찮은 생각도 들었지만 녀석의 그 한마디가 나를 솔깃하게 했다. 사실이 그랬다. 병구 녀석은 나보다 두 살이나 위이면서 부담없이 나와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누구한테 당했는데?」

「계집애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건 보통 사건하곤 달라. 전문적인 계집애들이란 말야. 내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으니까.」

「언제는 네가 꼼짝하고 당했니? 어서 주워 섬기기나 해.」

「좀 참아. 얘길 다 듣고 나면 네가 더 못견딜 걸.」

「너스레 그만 떨고 얘기해 봐.」

병구는 은주 누나가 내온 주스를 내 끝까지 마셔가며 주절주절 엮그게 당한 얘기들을 늘어 놓기 시작했다. 덩치에 비해 성질이 급한 녀석이어서 얘기가 앞으로 달려 갔다가 다시 뒤로 달려오는 식이었다.

방학동안 쓸 향토장학금을 은행에 다 넣고 나오다가 병구는 두둑한 주머니를 쥐며 한잔 꺾자고 제의했다. 같이 돌아다니던 덕수(德洙)녀석이 죄가 동했던지 맞장구를 치고 따라갔다.

「이왕이면 쭉 빠지게 꺾자.」

덕수가 병구의 두둑한 사정을 알고 이렇게 거들었다.

「종찬이 새끼나 끌어내자. 그새낀 끝내주는 데 알 거니까.」

병구가 공중전화로 달려가 연락했지만 하숙집에서 짐을 싸들고 나간 뒤여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우리 집 쪽으로 가다보면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던데.」

병구는 두둑한 호주머니를 믿고 신사동 쪽으로 달려갔다. 녀석은 그 근처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 여유 있는 촌놈이어서 미리 집장만을 해준 것이었다. 녀석은 한동안 나를 그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다.

컴컴한 술집. 메칸올, 인도향의 냄새를 피우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술집이었다. 터번 두른 사내들과 힌두교사원 냄새나는 벽걸이, 장식, 카펫트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신나게 흔들고 나서 살좀 빼자.」

그건 사내들의 암호였다. 춤을 추고나서 괜찮은 여자를 꾀어 재미를 보자는 신호였다.

「잘 골라라.」

두 녀석은 컴컴한 미로같은 술집의 이구석 저구석을 살펴가며 자리를 잡았다. 이런곳 일수록 의젓하게 굴어볼 필요가 있는 장소였다.

맥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무대 위에서 흔들며 돌아가는 춤꾼들을 하나하나 훑어 보았다. 무대 왼편에 악사들이 둘러 앉았고 무대 아래에는 컴컴한 사내들과 빨간 여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없이 깔려 있었다.

「얼지말고 눈 똑바로 뜨고 골라 임마.」

병구가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덕수의 어깨를 끌어 당겼다.

「모두 그게 그거 같다.」

「그게 눈깔이냐? 재들 어때.」

짝없는 계집애들을 가리키며 병구가 물었다.

「급한데 뭐 따지고 자시고냐. 어차피 하룻밤 풋사랑인 걸.」

「놀구 있네. 이왕이면 다홍치마야 임마. 눈깔 똑똑하게 굴려.」

웨이터가 쫓아와 공손하게 절하고 매시시 웃었다.

「아가씨 찾으세요?」

병구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고덕였다. 이런 곳의 생리를 좀은 알고 있다는 시늉이었다.

「쓸만한 애들 있나?」

「그럼요. 두명 데려올까요.」

「여기 애들 말고 아마추어로. 알았나.」

「알아 모시겠읍니다만 쉽진 않겠는데요.」

「이 자식아, 술값 올려주면 되잖아.」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웨이터는 담뱃불을 붙여주고 돌아갔다.

「임마, 여기 애들이 낫잖아.」

덕수가 뭐가 그리 급한지 맥주를 꿀꺽꿀꺽 삼키며 말했다.

「버엉신. 애들 팁 줄 거 가지면 더 신바람 날 수가 있어. 가만 자빠져 보기나 해.」

병구가 아는 척을 했다. 덕수가 말없이 술잔만 비우고 있었다. 병구는 이런곳엘 몇번 다녀본것 같았지만 덕수는 눈치가 처음인것 같았다.

「아저씨, 한번 놀래요.」

뒤돌아 보았다. 조명을 받아 화려한 의상이 더욱 선정적이었다. 약간 취한듯 싶은 두 여자가 병구와 덕수를 잡아 당겼다.

「나가자.」

병구가 벌떡 일어났다. 여자쪽에서 먼저 프러포즈했기때문에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었다. 행색이나 생긴것이 아마추어인것 같았고 빼어난 용모가 수롤한 직업적인 여자는 아닌것같았다. 나이는 적지도 많지도 않아 보였다.

"급한데 뭐 따지고 있어 어차피 하룻밤 풋사랑인걸"

순간 아가씨를 보자 가슴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일고

템포 빠른 음률이 사이키 조명과 어우러져 광란하는 무대같았다. 음악이 바뀌었다. 귓가에 익은 디스코음률. 캔 스톱 더 뮤직. 사람과 사람이, 마구 허물어져 내릴듯한 속도와 뼈가 삭을 만큼 흔들지않고는 못배길 율동이었다.

「뭐 해요?」

귓밥이 늘어질 만큼 큰 이어링을 흔들며 여자가 물었다. 큰소리로 말하고 대꾸하지 않으면 도대체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광명건설 알아?」

「알죠.」

「곤대 밑에서 기획실장 보구 있어. 그자가 염라대왕하고 면담하러 가야 내 신세가 편해지겠지.」

「홍축해라.」

「아가씬 뭐하러 이런 마귀 소굴엘 왔어.」

「친구 따라 강남간대잖아. 재 일본서 나왔는데 이런 데 못가서 몸살을 하잖아.」

「재일동포?」

「귀화한 애니까 그쪽 씨지 머.」

「쪽발이들이 더 신나는 곳 많을텐데.」

「남편 없는 데서 신나게 놀다 가려고 그러지 머. 저쪽 좀 친절케 해줄 수 없겠어?」

「아가씨도 임자 없잖아?」

「나야 머.」

병구는 결국 질로 덕수의 짝을 쳐다보았다. 두 여자 모두 빼 잘 생긴 여자였다.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 용모였다.

병구는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바꾸었다. 흔한 여자보다는 일본여자라는 게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 병구는 일본여자라고 하는데 귀가 번쩍 뜨였던 것이다. 녀석은 왜색시들의 추태나 일제시대의 정신대 생각을 지우지 않고 기회만 닿으면 일본여자를 짓뭉개고 싶어 안달했다. 녀석은 일본을 쳐들어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쪽발이들에게 몸 바친 여자들의 복수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큰 소리치곤 했었다.

「반갑습니다. 난 여기서 조그만 사업체를 하고 있읍니다.」

병구는 능청스럽게 일본여자를 떠보기 시작했다.

「전, 한국말 자리 못해.」

혀가 돌아가지 않아 알아듣을 수 없는 일본말과 우리 말을 더듬거렸다.

「여기가 좋아?」

「매우 매우 아름답고.」

「언제 갔는데 아직도 우리 말을 조금 하는 건가.」

「아이 예 다 잊어버려서요.」

가까스로 존칭어를 쓰기도 했다. 그녀는 아노, 하, 스미마셍, 와까리마스, 오우, 케이, 땡뀨…그런 식으로 삼개국어를 썼다. 대충 그 상황을 알 짐작도 없을만큼 그녀는 횡설수설 지껄이기도 했다. 술에 흠씬 취했으면서도 혀꼬부라진 소리로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고 했다.

「외로와 죽겠어.」

일본여자는 일본에 있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과 외롭다는 걸 술판이 끝날 때까지 강조했다. 병구는 기회다 싶었다. 이런 기회에 일본 씨가 섞인 여자라도 해치워서 마음의 위안거리와 친구들에게 자랑거리를 갖고 싶었던 것이었다.

「날 좀, 날 좀 이해해 줘.」

일본 여자는 아예 밀착해 들어왔다. 병구는 싫지 않았다.

「사랑해주지. 이뻐도 해줄 거구.」

병구는 일본 여자를 힘차게 안고 돌았다. 덕수 녀석도 힘빠진 눈알을 굴리며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대캄홀에 갑자기 밝은 조명이 터지며 올드 랭 사인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까지 늘어붙어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났다. 더러는 메카홀의 여자종업원 팔소매를 잡고 늘어붙어 있는 사내들도 보였고 재빨리 도망가는 여자들도 보였다.

병구는 웃옷을 걸치고 일본여자의 옷 입는걸 거들어 주었다.

「잠깐 다녀올께.」

여자 둘이 화장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디로 갈래?」

덕수가 기운 차게 말했다.

「임마, 집으로 데려갈순 없잖아.」

「나 돈 없는데.」

「걱정마. 내가 다 처리할테니까.」

병구는 돈을 꺼내 덕수의 주머니 속에 찔러넣어 주었다. 여자하고 갈 때 있으면서 돈이 없으면 괜히 주눅든다는 걸 병구는 이해하고 있었다.

「잠깐 뵐까요.」

웨이터가 다가서더니 병구의 팔을 끌고 커튼 뒤로 갔다. 덕수도 따라 들어왔다.

「저 여자를 잘 아나 해서요.」

「잘은 모르지만 왜 그래?」

「우린 우리 손님을 보호할 의무도 있잖아요. 저 여자들은 좀 위험스러운것 같아서 그래요.」

「뭐가 어때서. 그래? 일본 여자잖아.」

「그래도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좋은 여자애들을 소개해 드릴께요.」

「시끄운 소리하구 있네.」

웨이터는 자꾸 말리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웨이터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왔다. 두 여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두 녀석은 밖으로 뛰어 나갔다.

〈계속〉

젊은 知性들이 보는 實態와 價値觀

달빛이라도 은은한 밤이면 강변이나 공원에 나란히 밀착되어 속삭이는 戀人들을 흔히 볼수 있다. 사람의 발걸음이 빈번해도 그들은 아랑곳 않는다. 그러다가 슬쩍 입맞춤— 몇년전만해도 볼수 없었던 광경이다. 젊은이 전용 맥주홀이라도 가보라. 나이 든 사람들은 혼비백산할밖에 없다. 싱그러운 젊은 戀人들이 맥주잔을 앞에 놓고 당당하게 포옹을 하고 있다. 역시 사람들의 눈길쯤 아랑곳 없이. 키스. —언제부터 그 입맞춤이 우리 주변에 이처럼 정착했을까. 여기 젊은 知性이 털어놓는「키스의 現考學」이 있다. 그들은「키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키스의 現住所

MBC 라디오 銀賞 수상

제5회 大学生作品 현상모집 작품「키스나 뽀뽀나 똑같애」에서

키스=남의 입술이나 손등에 자기의 입을 맞추는 일.

뽀뽀=어린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입을 맞추는 것을 일컫는 말.

키스와 뽀뽀에 대해서 우리말 큰 사전에 수록된 풀이 내용이죠.

♥키스를 아십니까?

우리들이 일상 접하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의 그런 단어들이죠. 남아프리카에서 열린「뽀뽀 마라톤대회」에서 딜리·오데파 빌리판·데이비스·티휘렌이 119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키스기록을 남겼었죠.

그렇다면 키스와 뽀뽀의 의미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 이 글은 제5회 MBC 전국대학방송 작품 경연대회에서 銀賞에 입상한 한국 항공대학의「키스나 뽀뽀나 똑같애」(연출 朴勝鎬·연기 金武仁·기술 姜周暉)의 臺本을 발췌 成文化한 것이다. (편집자註)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키스와 뽀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키스와 뽀뽀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까요.

과연 키스와 뽀뽀는 똑같을는지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보겠읍니다.

男大生A군=입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되지만 키스는 뽀뽀보다 좀 더 애정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女大生A양=어떤 육체적인 개념이 들어 간다면 키스고, 정신적으로만 생각할수 있다면 뽀뽀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肉體的 개념의 뽀뽀=키스 純潔따지는건 고루한 思考

男大生B군=뽀뽀라고 하던 작은 인사라고 할 수 있고 키스라면 리얼한 맛이 느껴집니다.

女大生B양=뽀뽀라면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것처럼 귀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男大生C군=키스는 좀 농도가 짙은것, 서로 사랑하는 걸 연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땐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가하죠.

네, 이렇듯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키스와 뽀뽀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뽀뽀는 모성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애정의 표현으로 보았구요, 키스는 연인들 사이에 있어서 사랑표현의 한 수단으로 본것이죠.

♥키스란 무엇인가요?

원래 키스의 유래를 살펴보면 멀리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선조들이 서로의 얼굴을 핥아서 부족한 염분을 섭취하는 행위, 그런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되어있죠.

그렇다면 키스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녹음)

여자양=키스, 키스야 뭐 입과 입이 마주쳐가지고 연인과 연인들이 동등위치에서 자기의 정열을 태우면서 자기를 남기기 위해서 상징으로 하는 동작이죠, 머!

병태군=키스란 상당히 가까운 연인사이에서 진하게 느낄수 있는 그런게 바로 키스같아요.

이화양=키스, 하여간 되게 정답게 들리는 단어같애요.

태달군=점점 애정이 깊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時間도 멈추었다.
그것은 純白의 幸福。
너와 나와의 긴 입맞춤—。

그럼 이번에는 키스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수록된 또 하나의 기록을 볼까요. 미국인디애나주에 사는 제프리·헌틀러라는 사람이 단지 8시간에 3천2백25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여인들과 입을 맞췄다고해요.

그렇다면 한번 입을 맞추는데 평균 8•93초가 되는 셈이죠. 앞서 말한 거와 같이 키스와 뽀뽀가 다르다면 이것은 키스라기 보다는 뽀뽀의 기록이 되는 셈이죠.

♥첫 키스의 경험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키스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뽀뽀보다는 첫 키스의 얘기를 살짝 들어보기로 하죠.

女大生 A양=겨울에 눈내리는 밤에 사랑하는 사람이 집을 바래다 준다고 해서… 그 기분은 별로 나쁜게 아니었어요.

男大生 A군=대학 3학년때 겨울입니다. 그 여인을 좋아했죠. 나의 사랑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좋아한다는 의미를 밝힌다는 담담한 심정으로…황홀했어요.

女大生 B양=대학 1학년때 처음으로 캠핑가서…8명이 함께 갔는데 그중 그사람에게 호감이 갔어요. 이틀째 중인 비가 와서 있다가 개후 둘이 산책 나갔다가… 얼떨떨하고 행복했고 신비스러웠어요.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태초에 반쪽은 남자이고 반쪽은 여자인 복합적인 존재였다고 해요. 그러나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사람을 반쪽으로 잘라놓고야 말았죠. 그래서 반쪽만 가진 남자와 여자는 항상 이성을 그리워하며 다른 한쪽과 결합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키스는 애정표현의 한 방법이며 서로의 사랑을 인식하는 매체역할을 할 것입니다.

♥키스의 純潔性

그렇다면 애정표현의 한 방법으로서의 키스. 키스 자체에다 순결성의 의미를 부여할수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육체의 순결과 더불어서 키스에도 순결성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지요.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죠.

병태군=키스가 서양에서처럼 생활화 된 것이 아니니만큼 동양적인 도덕면에서 볼때 순결성을 부여하고 싶다.

영자양=키스를 한번 자기란 맡길만한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키스를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키스를 했다면 그게 육체적인 관계까진 안갔다 하더라도 벌써 자기 몸의 일부를 허락한 것이니까 거의 순결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죠.

♥女大生의 키스觀

이상에서는 키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순결의 의미를 부여하는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들이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선 금남의 집에서 사는 여학교 기숙사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애교양=내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키스를 통해서 좀 더 가까와 질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나아가 몸을 준다해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순결을 빼앗긴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순결이란 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자양=저는 순결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사랑이 정말 한 대상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입을 저질렀다. 그리고 나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다… 그럴때는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男女學生의 키스觀

그렇다면 남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병태군=순결문제에 있어서는 키스를 했다고해서 처녀성을 잃었다든가 그 여자가 육체적인 경험을 가졌다든가 생각할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홍문군=키스로 처녀성을 잃었다 어쨌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할수가 없을것 같아요.

체념군=그렇게까지 순결을 지켜봤자 무엇 하겠읍니까? 그렇잖아요?

현미경군=키스는 하나의 피부접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결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죠.

戀人과 일저질러도 "순결잃었다" 생각않아

똥땅군=요즈음 여자들은 키스야 머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마저 순결성을 부여한다는 건 좀 너무 사회를 복잡하게 살아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지와 치마의 對話

이제 남녀공학 캠퍼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스럼없는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영자양=꼭 키스를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게 아니구 또 뭐 표도 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그냥 간나는 거니까 키스를 했다고해서 순결성을 잃은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에선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병태군=글쎄 좋아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게 키스라 생각합니다. 키스에다 순결성을 부여한다는건 너무 고루한것 같아요. 서로 좋다는 감정표현을 단지 손을 잡는다든가 그런것보다는 직접적인 육체적인 접촉중에서 제일 간단한것이 키스로 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에서 보면 순결의 의미라는 것은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라면 적어도 키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읍니다.

♥키스의 意味

우리의 옛 사람들은 남녀7세 부동석이란 옛말도 있듯이 성이란 부끄러운 것으로 감춰야 한다고 생각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오늘에도 변함없이 젊은이 의식민에 잠재되어 있는것 같죠.

女大生A양=키스자체에 내한 의미가 있어야 한것 같아요. 아무하고나 키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네가 사랑하는 이라든지 따르던 어느정도 가까운 사이라고 느껴질때 서로 나누는것이 키스죠.

男性A군=애정이 없는 키스는 배격하고 싶어요. 감정이 서로간의 가슴에서 우화가 일어났을때 행할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키스는 단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저제하고 있읍니다.

♥언제쯤 키스하나

그러면 젊은이들이 보는 사랑하는 관계란 과연 어떤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트기간을 거쳐야 상대방에 키스를 허용할까요.

갑순양=내가 사귀는 아이를 처음 소개받았을때 그 애는 그날 당장 키스하자고 했으나 저는 남자와 달라서 이를 거절했죠. 계속 만나서 싫증나지않고 개를 좋아하게 됐을때 응해야 후회하지 않을것 같아 20회쯤 만났을때 허락했어요.

◇지나가는 발걸음쯤 아랑곳않고 무엇인가 속삭이는 젊은 戀人들—。키스는 곧 純潔과 연결지어졌던 우리 사랑의 風俗圖에도 엄청난 變化가 일어났다。

을순양=그 사람을 안게된후부터 6개월정도 사귀었을때였죠. 친구로서 사귀다 느낌이 달라지게되어 어느 여름날 우린 키스를 나누었어요.

갑돌군=미팅서 첨 봤을 때 맘에 들었어요. 우린 3, 4번 만난후 공원에서 첫 입맞춤을 나누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973년 생리의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콘라드•로렌스박사는『요즘 젊은이들은 봉봉껌을 씹다가 뱉어버리듯이 인스턴트식 젊음을 즐기다가 싫증이 나면 역시 새로운 젊음의 대상을 찾아나선다』라고 말했죠.

과연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사실일까요. 그럴진 않죠. 극히 일부의 젊은이들이 그와같은 생각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이라해도 막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의 순결과 어떤 신비에 걸고 있는 기대와 도덕이 아직은 우리 마음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가지 얘기를 담아보았죠.

모두의 생각이 이런것이 대러분 자신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읍니까.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⑧③

감회서린 停年退任

길고도 짧은 한 세월이었다. 감회가 물밀쳐온다. 77년은 정년의 해이고 2월28일이 퇴임일이었다. 공적으로는 학원에서 물러나는일, 오는세대에게 학문의 바통을 넘기는 일일 것이요, 사적으로는 한일생을 정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다음일에 대비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갑자기 외로운 혼자임을 보게됐다. 남은 한세월이 나를 더욱 조급하게 조여올것이다. 그러나 나는 차분하고 느긋했나. 출판 지주가되어왔던 신앙이있고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학문의 이어짐이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주저함없이 호주(SABRAO)와 뉴질랜드(INFRO)에서 열리는 두가지국제회의에 참석하는 2개월여예정의 여행길에 올랐다.

출발에 앞서 그동안 모아서 활용했던 책과 문헌, 그리고 각종자료는 대학원생들의 이용을위해 도서관에 기증, 문고를 만들도록하고 비품과 약품은 육종학교실에 기증, 모두 옮겨가도록 했다. 이정도 정리를 하고 나니 떠나는 마음 한결 가벼웠다.

호주의 灌水농업은 경이로왔다. 캔버라로부터 4백㎞나 떨어진 내륙 사막지대까지 물을 끌어 각종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그면적이 18만정보, 전국적으로 2백70만정보에 이른다니 과학농업의 개가라 하지않을수 없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 여정중에 맞은 퇴임날인 2월28일, 발등에 무섭게 솟았던 종기가 가신듯 완치되었다. 65년동안 몸과 마음에 생겼던 종기가 모두 사라져버린듯한 신선한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덤이나 다름없는 남은 세월에도 오늘의 이 신선함을 주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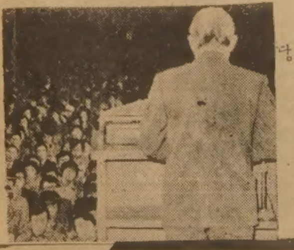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부분적으로 한국과 同病相憐이었다. 남쪽섬은 본래 林相이 좋았으나 영국인이 베어내고 양을 방목하는 바람에 산꼭대기까지 무섭게 황폐되어 있었고 토사가 흘러내려 강바닥을 메워갔다. 목재를 수출하는 나라에 어울리지않게 임업연구소는 사방실험을 주로하고있었다. 한국의 상처를 보는 아픔을 느꼈다.

덧없는 두달 여정이었다. 귀국해 보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미 퇴임이 되어있었고 계약공무원으로서 임목육종연구소의 연구고문직이 맡겨졌다.

아직도 내게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계속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배려된 것은 감사했다. 그보다 더욱 고마운 길은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가 모두 정리 제본되어 3층별실에 香山文庫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내分身이었다. 30여년몸담아온 농대구내에 내 分身을 남겨 놓았음은 하나의 희열이었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林學館착공을 정년퇴임을 맞은 내게는 큰기념이고 선물이었다. 임학관건립은 작고하신 金浩植학장때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尹天柱총장과 李春寧학장의 배려로 예산이 확정되어 77년 그해 착공되었던 것이다.

뒤늦게 退任式…못다한 가르침에 아쉬움 느껴



정해진 날이 이미 2달남짓 지난 4월24일 농대 강당에서 소위 정년퇴임식이 거행되었다. 고별강연을 통해 학원과 공식적인 작별을 해야했다. 서린감회가 넘친반면 회한도 한아름이었다. 지난 47년간 임학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섭리에따라 무사히 여기까지온 안도보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무겁다.

나는 마지막 강연을 끝내면서 학생들에게는 호소로, 내 마음엔 기도로「너 푸른 젊음이여」를 남겼다.

새나라 지도자로 뽑힌 너 젊음이여
半島강산 푸르게하는 학문을 닦아
나의 나라 나의 겨레 번영케하여
인류생존, 복지를 북돋아 보세
하늘의 부름받아 일어선 너 젊은이여
저하늘 높은 별에 네뜻을 싣고
저 깊이 숨어있는 그윽한 진리를
오늘도 내일도 힘을다해 캐어보세
역사의 부름받아 나선 너 젊음이여
사랑, 예지, 창조력을 기르고 닦아
東方의 꺼진 등대 다시금 불을켜서
영원한 생의 열매 맺도록 하여보세.

이 몇귀절이 입학관을 들어가는 문앞에 새겨져 지금도 나를 채찍한다.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會長 張康在 / 發行人 洪惟善 / 編輯人 鄭泰演 / 印刷人 李基和 / 編輯局長 權謙昇

「깨끗한政府」 제도적措置

公職者倫理法案미흡 종합적 補完策 마련하기로

不正腐敗 강력規制
공무원處遇개선 國營의 80%수준으로

판공·情報費증액

정부는 제5공화국이 당면과제로 삼고있는 「깨끗한정부」, 깨끗한 공직사회의 실현을위해 관계되는 각종제도와 法令을 재검토,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방침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공직자윤리법안과 시행중인 공무원윤리헌장등 각종 제도만으로는 「깨끗한 정부」실현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전해졌다.

새로마련될 보완책의 방향은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마련과함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병행시켜나간다는 당초의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무원의 봉급수준을 83년까지 국영기업의 80%수준에 접근시키도록하고 판공비 또는정보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할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처 관계자는 15일『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방안을연구 검토중』이라고 말하고아세안국가중 싱가포르가 공직자의 부정과부패가 없는 깨끗한정부의대표적인예로성공했음을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깨끗한정부의 구현을위해 공직자숙정, 각종사회정화운동, 공직자 윤리법안마련, 공무원윤리헌장제정▲공무원인사의 공정을위한 공무원법의 개정▲인사경정제도에 청렴도를 반영하는등 제도를 갖춰왔다.

정부는 또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학자금및 의료비등의 저리융자등 공무원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등 사정으로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지못하고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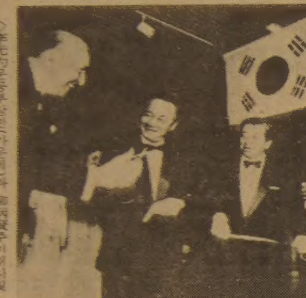
國民貯蓄 폐지검토
財務部 財形저축은 부분改善

재무부는 「성장및 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강제저축제도인 국민저축조합제도의 개선 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1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2만원이상의 봉급 생활자에게 월급의 2%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고있는 현행 국민저축제도의 개선이나 폐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말로 신규계약이 끝나는 근로자재형저축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 내년이후에도 계속 실시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저축률이 낮고 내자동원기반이 취약했던 시기에는 국민저축조합등 강제저축이 필요했으나 저축기반이 어느정도 다져진 지금에와서는 저축당사자가 더 효율적이란판단에서 이같은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는 것이다.



◇李光杓문공부장관(가운데)과 柳炳賢주미대사(왼쪽)및 스미드소니언연구소회장 딜론·리플레이박사가14일 스미드소니언 연구소박물관실에서 열린韓國미술5천년전의 개막테이프를 끊고있다.【워싱턴14日AP聯合=聯合】

金前駐美大使 귀국

金溶植前駐美대사는 美國근무를 마치고 15일저녁 KAL便으로 귀국했다.

워커駐韓大使 認准 美上院 外交委

【워싱턴14日AP=聯合】미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리처드·L·워커교수의 駐韓미대사 임명안을 인준, 상원본회의에 넘겼다.

외교위는 이날 워커대사외에 버논·월터즈순회대사, 에드워드·로우니軍縮협상수석 대표등 8명의 임명안을 12대0으로 일괄 통과시켰다.

"韓·美文化교류 增進"
李文公 韓國美術5천년 워싱턴展개막

【워싱턴=曺淳燦특파원】李光杓문공부장관은 15일 상오(한국시간) 스미드소니언연사 박물관에서 열린한국미술 5천년전 워싱턴 전시회 개막 축하만찬연설에서『지난한世紀는 韓美두나라의역사속에서 그 유례가 없을정도로 구주히 양국의 유대를 증대시켜온 특기할만한 세기였다』고 지적하고『미국의 수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가 韓美양국간 문화교류의 의미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미드美법무장관, 딜론·리플레이스미드소니언 협회장등이 참석한축하연에서 李장관은『지금 韓美간의 관계는 다행히 서로를 對等하게보는 두동반자간의 성숙하고 우호적이며 상호존중하는 관계로 진전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미국과함께아시아의 안보와 세계평화를수호키위한 아시아의 파수대가 되고 또한 미국의 활발한교역상대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는9월30일까지 두달반 동안에 걸쳐 전시될 한국미술 5천년전을 위해 스미드소니언박물관은1만2천평방피트의 특별전시장을 마련하는한편 최신고도의 안전장치를 갖추기도 했다.

첫「腦炎症勢」로 숨져
光州서 지난9日 병원治療뒤 歸家했다

【光州=聯】올들어 첫 일본뇌염증세 환자가 전남 光州에서 발생, 치료를 받다가 숨졌음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光州市西區農城洞655의 10 金哲鎬씨(32)의 장남 大鎬군(4)이 지난6일 낮12시 45분께부터 고열과 경련을일으키는 뇌염증세로 조선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받다가 9일 퇴원 자기집에서 치료를 받던중 지난11일 새벽3시30분께 숨졌다는것.

◇美 첫女大法院判事로 지명된 오코너女史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美최초의 여성대법원판사로 지명된 샌드라·데이·오코너여사㊧가 14일 윌리엄·프렌치·스미드법무장관㊨과 함께 법무성앞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워싱턴14日AP聯=聯合】

말聯·蘇관계 惡化
間諜행위 蘇外交官 추방으로

【쿠알라룸푸르14日路=聯合】13일밤 말레이지아주재 소련대사관직원8명의 추방과 소련의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는 말레이지아고위관리의 구속으로인해 소련과 말레이지아간의관계가 당분간 악화될 것이라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14일말했다.

外交官 中·蘇語 교육
外務部 課長이상 能動外交대처…義務的

외무부는 7월1일부터 본부 課長級 (서기관·副이사관)이상 50여명을 상대로 中國語와 소련語를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견외교관에 대한 中國·소련語의 교육은 정부가 현재 中共이나 소련과 공식외교관계는 없으나 언젠가 닥칠지 모를 韓半島주변정세변화에 대비,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펼치기위해 事前보완대책의 하나로 풀이되고있다.

정부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 한국외교관 가운데 中國語나 소련語에 능통한 중국과 소련通이 거의 全無한 사실을 지적, 『언젠가는 도래할지 모를 주변強大國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등에 대비하기위해서는 중국과 소련通 외교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힘으로써 美·日·中·蘇등 4大國의 南北韓교차승인과 나아가 中蘇와의 國交개설의 가능성을간접으로 시사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南北韓의 유엔同時가입문제와관련,『南北韓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경우 우리와 中蘇와의 국교개설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사실이 될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외교관에 대한 中·蘇語교육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일 아침7시30분부터 외무부산하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1시간씩 실시되고있는 中·蘇語 교육에는 외무부산하 課長級 50여명이 전원참석, 두가지 외국어가운데 한과목을 의무적으로 履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2개월마다 시험을치러 그성적을 승진및 국내외 人事交流에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져있다.

외국어교육이수과정은 初·中·高級으로 나누어 6개월 코스를 한하기로 책정했다.

大入학력·高入연합고사에 英語會話능력 成績에 반영
文教部
教育方法改善委 곧 구성…方案검토

문교부는 중·고교생의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입연합고사의 영어과목에 회화능력을 평가할수있는 방법을 개발, 이를 성적에 반영시킬것을검토중이다.

鄭泰秀문교차관은 15일『중고교생의 영어학습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치는것은 아무래도 국가가관장하는 고입·대입시험이기때문에 현재문교부가 추진중인 영어교육방법개선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국가고사에서 영어회화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될것』이라고 말했다.

鄭차관은 『그러나 시험관리상 50만명이상의 수험생에게 동시에 회화능력을 평가하는것은 극히 어려운일』이라면서 사견임을 전제, 『듣는능력, 문법, 독해력등 3분야를 종합평가하는 토플(TOEFL)문제를원용, 녹음을 활성기로 틀려주고 받아쓰거나 해답을 쓰도록하는 방안도 생각할수있다』고 말했다.

鄭차관은 영어교육방법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기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게될것이라면서 회화능력의 향상을위해서는 시청각교실설치등 막대한 예산이필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또 鄭차관은 문교부가 금년부터 지정, 실시중인 외국어 교육개선을 위한 11개 중고등학교의 실험결과가 곧 나올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될것이라고말했다.

競爭막는 카르텔行爲 전면調査
登錄신청 百69개·未申請단체
企劃院

정부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시행에따른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協會, 組合등 이름의 각종 사업자단체를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가격인상談合, 出庫조절, 품질경쟁과 서비스 개선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제품규격, 거래조건, 판매지역, 설비등에대한 일체의 경쟁제한적인카르텔행위에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지난달말로 설립신청이 마감된 5백2개 각종사업자단체중 경쟁제한행위 등록신청을 한 이·미용사회, 숙박·목욕업협회등 1백69개 단체에 대해서는 실태나 適法性여부등의 개별審査에 나서는 한편 등록신청조차않은 여타 協會, 組合등의 闇카르텔에 대해서도 內査에 나섰다.

中小企業 담합、藥·大衆음식값 引上
理美容 숙박 목욕·書籍正札등 內査

정부에 경쟁제한행위를 등록신청한 1백69개사업자단체중 1백2개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自救策으로 생산, 購販, 가공, 수송, 수의계약등에 공동행위를 해오고있는것이며 53개단체가 酒稅法, 양곡관리법등 여타법률규정에 근거, 카르텔행위가 용인되어 왔던것이고 法的근거없이 업자단체恣意로가격談合등카르텔행위를 해온것은 대한藥事會의 약품小賣價지정, 숙박·목욕업자들의 협정요금등 8건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실은사업자단체의 카르텔등 경쟁제한행위를조장하는 기존 法規를 단계적으로 정비철폐한다는 계획아래우선1단계로法的근거가있는 이들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대해서는 그것이 법규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있는지 여부, 中小기업의경우라면 참여업체가 실제중소기업기준(資産5억원이하 또는상시고용원 3백인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뒤 이달말까지 대체로 등록을허용해줄방침.

또 法的근거가없는 組合등18개단체의 談合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단 상정, 選別허용할 방침인데 최근의대한 藥事會 약품소매가지정 일괄인상은 객관적으로 검토의여지가 더이상없다고보고 공정거래실에서 이미 등록거부를결정했다.

공정거래실은 지금까지 가격표시제대상이던 찻값 대중음식요금등은 해당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록신청조차 없었던것을비롯 음성적으로 갖가지 카르텔행위를하면서도 정부에 등록신청을기피한 闇카르텔이 상당히성행한 것으로보고 광범한 內査에착수, 적발되는 업자단체나 임자에 대해서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1년이하의징역등 단호한 制裁조치를가할 방침이다.

한편 공동행위에대한 法的근거가없어 공정거래 위원회에 일괄상정,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엄격한심사를받게될 사업자단체 카르텔행위는 대한藥事會의 의약품소매가격 지정을비롯, 이·미용사회의 이발·미용요금과 숙박·목욕업의 협정요금, 직업寫眞家協의 사진가격, 書籍商 正札판매, 보세협회의 컨테이너貨物內陸운송요율, 선박대리점協의 외국적선박 入出港수수료, 예·부선사용료, 音盤협회의 무허가제작업소제품 不買등 거래조건제한, 漁肉제품협정가격, 중소상인연쇄점협회의 수수료협정, 구명탄연소기협회의 생산·출고·판매및 규격제한, 葬儀社요율협정, 航業협회및 항공화물주선업협회등의 수수료협정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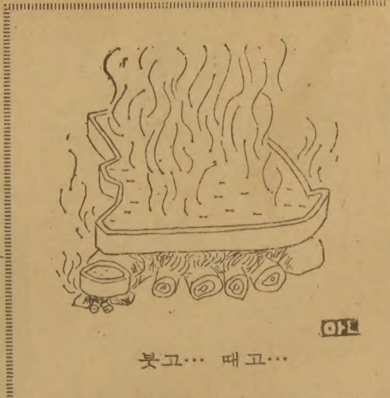
丁議長 美洲방문 어제 콜롬비아到着

【보고타=李成俊특파원】美洲방문에 나선 丁來赫국회의장은 15일 상오8시(한국시간하오9시)콜롬비아 首都보고타에 도착, 3泊4日간의 공식방문일정에들어갔다.

丁의장은 이날 보고타공항에서 에르난도·투르바이 下院의장을 비롯한 콜롬비아의회지도자, 池運泰駐콜롬비아대사와 교민대표들의 영접을 받았다.

丁의장은 이날하오 투르바이 下院의장, 호세·이그나시오·디아스·그란도스上院의장, 쿤디나·마르카州知事를 차례로방문, 韓·콜롬비아우호협력증진 및 의회교류강화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

社會漫評



붓고… 때고…

地平線

17세기후반 한때 이땅에 발을디뎠던 하멜의 눈에는 신기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예를 들자면 이「은사의 나라」사람들이 하멜 일행의 하얀 피부를부러워하더라는 식이었다。그중에는 이미 이때 대중적인 교육기관이 보급돼있고, 교과서가 있었다는 것도 있다。고을마다 있는「서당」이 그것이다。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교육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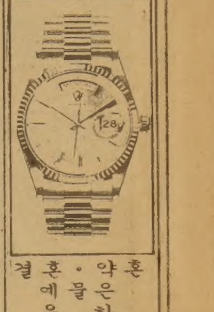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됐던 앨빈·토플러는 서양에서 산업혁명후 보급된 대중교육에 관해서 재미있는 말을 하고있다。토플러에 의하면 서양의 초등학교교육은 3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첫째 시간엄수, 둘째 순종, 세째 단순반복노동에의 적응력이다。예술적 상상력이 번득이는 그의 재치있는 분석이다。

▼토플러는 서양 대중교육의 공통된 기반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보자면 나라마다 특징이 있게 마련이다。소위「내셔널·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다。대개는 역사가 그나라의 위대한 과거를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게 국민적 긍지를 심어주는 기능을 맡게된다。그래서 역사는 나라마다 말하는 내용이 다르게 마련이다。이러한 차이는 그러나 역사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요즈음 미국과 일본사이에 교과서에 나타난 편견과 잘못된 부분을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졌다한다(한국일보 15일자 11면보도)。양측의 비판이 모두 그럴만한 근거가 있지만, 대체로 일본은 지엽적인 대목을 지적하고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피해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일본의 교과서가 아직도 터무니없는「식민사관」을벗지않고있다는 피해의식이다。

▼사실 패전이후 일본사회가 엄청난변화를 겪은것은 틀림없다。예를 들자면 외국군대가 처들어오면 싸우겠다는 사람은 34%지만, 도망가거나 손을 들겠다는 사람은 37%였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그러나 일본의 각급학교 교과서에는 특히 한일관계대목에서 여전히 터무니없는 식민사관이 그대로 살아있다는게 두나라에서 여러차례 말썽이 돼왔다。

▼교과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작업은 이웃사촌 앙숙인 독과 프랑스사이에서 몇해전에 있었고, 동서공존 무드가 한창이었던 카터시절 미국과 소련사이에서도 있었다。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이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무래도「편견」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해야할것이다。한일 두나라의 관계자들도 하루빨리 공동작업을 펴야 될것이다。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3
은 : 온스당 US 9.3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간女性

불로아 & 베다스트 하드웨어
•가정용, 살림도구(부엌)
•각종 전기제품 수리및 판매
•유리 (가구, 상점용)
•각종 철물및 PAINT
•PLUMBING 제품
•기 타
변 의 섭
☎ : 531-6183 608 Bloor St.W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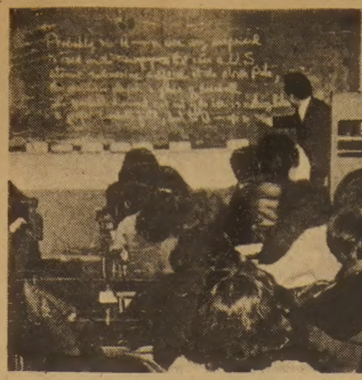
사진의 전당
TECH PHOTO LAB
INDUK RHEE
PRESIDENT
630 BLOOR ST W.
TOR ONT.
☎535-7772

■ 각종증명사진 ■ 결혼사진
■ 현상, 인화, 확대 ■ 회갑사진
■ 출장환영 ■ 돌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英語교육 문제와 改善方向 ①



◇외국어강의를 받는 대학생들。원서로된 고전을 배우지만 말하기 교육은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

會話 두려움을 없애자

文法·讀解위주 教習지양 듣고·보고·말하는 習慣을

해방이후 36년동안 우리국민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바친 시간과 금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고졸자가 순전히 중·고등학교 과정의 정규학교에서 받는수업만도 1인당 무려 1천시간에육박하고 그밖에 독학이나 학관 수업이 또 그만큼은 될것이고 「삼위일체」다「구문론」이 다해서 사들인 교재,참고서 값까지 따지고들면 실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돈을 쏟고난 지금의결과는 어떤것인가。그것은 약간의 예외는 있을지몰라도 한마디로 참담한상태 바로 그것이다。

【盧基昌기자】

波共黨도 휩쓴 自由化홍수

波 공산당 제9차 특별全黨大會

◇全黨大會 개막식 波頂上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 ⓐ와 보이체흐·야루젤스키 수상이 제9차 폴란드 공산당임시대회의 개막직전 이야기를 나누고있다。【바르샤바14日 AP聯合=聯合】

國際焦點

指導層 비밀投票로 선출

코페르니쿠스的轉換…蘇도 못꺾어

【李炳圭기자】

워싱턴이 焦土化되면

重武裝 보잉747 4대 24時間대기

공중서 白堊館·國防省 역할까지

美國防省 蘇의 核공격 대비 大統領지시각서58 改正검토

◇손수 시장바구니를 들고서 거리를 나서는 프랑스 퍼스트·레이디 다니엘·미테랑여사。다니엘·미테랑여사가 엘리제宮 안주인이되자 엘리제宮분위기는 서민적으로 바뀌었다。【렉스프레스誌】

市場바구니든 미테랑佛大統領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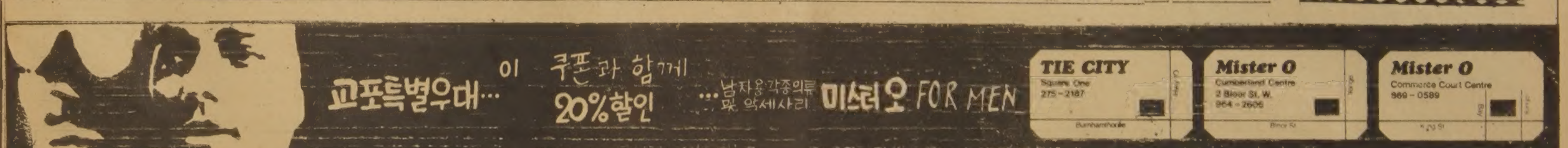
메아리

「一見」의 價値

張吉山 (1611)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第一章 彌逆 勒謀 (71)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동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회수.
☎: 255-6849, 255-0713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536-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뷔페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퍼먹하는 식사와 점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각종 가죽옷 도산매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한국、加도 대파 2連勝

7회 13대1 콜드게임勝

宣銅烈、三振10개 安打 1개만허용

美프로球團스카우터 好評받아

世界청소년野球

◇9회초 4—4 동점홈런을 날린 미국의 2번슈미트가 나인의환영을 받고있다。

【뉴어크 (美오하이오州) = 李鍾南특파원】 한국청소년야구대표팀은 15일 새벽 (이하 한국시간) 이곳에서 벌어진세계청소년야구대회예선 A조 2차전에서 선발투수 宣銅烈이 6회까지 18타자를삼진10·안타1개로 막는 호투에 힘입어 캐나다를 13—1、7회 콜드게임으로 대파하고 2연승을 올렸다。

宣銅烈은 이제까지 2게임 15이닝에서 3안타·삼진 23개·무실점·2승의 쾌투를 보이고있다。

宣銅烈은 스피드·전의 속도측정에서 139·2㎞의 스피드를 보였으며 뉴욕·양키즈、신시내티·레즈、샌디에이고·파드레즈등 프로구단 스카우터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한국은 이날 1회말 10명의 타자가 등장、3번林眼澤의 3루타를 비롯한 집중4안타·3敵失로 5득점 했으며、4회말 연속4안타로 3점、5회말 타자일순하며 4안타로 5점을 추가、대승했다。

한국은 16일새벽1시 네덜란드와 3차전을 갖게되는데 전력상 결승진출이 확정적이다。

◇제4일전적

▲A조

캐나다 (1승1패)	0	0	0	0	1		1
한국 (2승)	5	0	3	5	0	×	13

〈7회콜드·게임〉

베네수엘라 3—1 네덜란드
(2승1패) (1승2패)

▲B조

호주 10—4 이탈리아
(2승1패) (1승2패)

光州高 東亞꺾어 전국고교籠球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 남녀 고교농구대회 4일째 1회전 경기가 15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남고부서 光州高는 전반 14번의 타이를 이루며 고전했으나 후반 東亞高의 단조로운 포스트플레이를 과감한 골밑대시로 봉쇄、77—63으로 역전승、8강에 올랐다。

한편 여고부서 成德女商은 海成女商을 초반부터 압도、54—41로 꺾고 준준결승에나 갔다。

東亞는 후반에서도 徐大成의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했으나 光州는 재빠른 패스워크와 기민한 골밑돌파로 맞서 77—63으로 낙승했다。

◇제4일 1회전

▲남고부
광주고 77 (45—29, 32—34) 63 동아고

▲여고부
성덕여상 54 (26—18, 28—23) 41 해성여상

12回末 4安打로逆轉

한국、美추격뿌리치고 3連勝

韓美大學野球 3차戰

제2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 3차전경기도 양팀이 4—4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채 연장10회까지 승부를 가리지못해 시간제한일시정지로 15일 하오5시30분 연장계속경기를 갖게되었다。 15일 속개된 연장 12회전서 한국선발이 美國을 6—5로 승리했다。

14일밤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3차전서 한국대학 선발팀은 5회까지 안타수8—3의 열세로 3—1로 뒤지고 있었으나 6회말 2포볼과적시안타로 1사만루의 찬스서 7번 朴榮泰의우전적시타、8번 李善雄의 우희비로3—3의 동점을만들고당황한 미국 1루수의 악송구로 4—3의 역전리드를 잡았다。

역전패의 위기에몰렸던 미국대한선발은9회초선두2번 슈미트가 역투하던 한국의 구원투수 吳泳日의 제2구를 통타、좌중월 솔로·호머를날려 연장전에 들어갔다。

미국은 2연패를 만회하려는듯 이날 초반부터 맹타를 퍼부어게임을 리드해나갔다。

1회초 선두1번 맥도웰의첫안타에이어 2사후 5번 러쎄이 좌전적시타를 때려1점을선제、이어 2회초 슈미트의 적시타를 비롯한3안타와 폭투로 2득점、3—0으로 앞섰다。

◇제3차전

미국	1	2	0	0	0	0	0	0	1	5
한국	0	1	0	0	0	3	0	0	0	6

▲홈런=슈미트 (9회초·미국)

霸者7명 탄생 체급별 柔道폐막

제20회 전국 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가 15일 여의도 도회관서 열려 7체급의 우승자를 가려냈다。

◇각체급 우승자
▲엑스트라 라이트급=宋順一(한체대) ▲하프 라이트급=李元喆(수경사) ▲라이트급=金基烈(한체대) ▲하프 미들급=薛如山(한양대) ▲미들급=程鉉澤(한체대) ▲하프 헤비급=朴富鎬(수경사) ▲헤비급=金禮洙(계성고)

타이 9번…後半의 大逆轉

존즈컵농구 한국女子、美꺾고 2連覇

長身 맨투맨에 막혀 전반 苦戰

全美愛 勝機、朴贊淑 골밑 固守

◇땀의 보람을 안고 존즈컵 농구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여자대표팀 善德의 朴良桂㊥ 車良淑㊨ 金和順㊧등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고있다。 【臺北AP聯合=電送】

한국여자농구 대표팀은 14일밤 自由中國 中華체육관서 열린 제5회 존즈컵쟁탈 국제 여자 농구대회 최종결승서 강적 美國에 68—64로 역전승、7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2연패했으며、이 대회서 3번 우승을 거두었다。 한국은 전반 美國의 장신에 막혀 9번의 타이를 이루는 격전을 벌인끝에 37—34로 뒤졌으나 후반 朴良桂가 게임을 착실히 이끌고 朴贊淑이 골밑을 굳건히 지키는한편 全美愛 金和順이 과감한 공격을펴 68—64로 역전승했다。

전반 9번의타이를 거듭하는 격전끝에 한국이 뒤졌다。 한국은 朴贊淑 金和順 鄭美羅 洪惠蘭을 선발로 기용、평균신장이 1m79로 한국보다 2cm가 더큰 美國에맞섰다。 양팀 모두 맨투맨으로 초반부터 강력히맞섰는데 朴贊淑 金和順의 활약으로 6—0、쾌조의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美國은 장신의 골밑슛을 최대한 이용、6—6으로 따라 붙은후 치열한 시소가 전개되었다。 한국은 朴贊淑의 분투로、美國은 골밑슛으로 응수했고 鄭美羅 朴鎭淑 洪惠蘭의 활약이 미국의 강력한 맨투맨에 막히자 20—22로 한골 뒤지기도했다。 이 고비를 한국은 金和順의 골밑 돌파로 넘겼고 朴贊淑의 슛으로 28—24로 점차를벌렸으나 30—30 7번째 타이를 허용한후 34—34 9번째 타이가되었다。 한국은 전반종료 20초를남기고 패스·미스를 저지른데다、洪英順이 잇달아 반칙을 범해 37—34로 뒤졌다。 후반 한국은 수비를 박스앤드·원으로 바꾸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더우기 중거리슛이 터지지 않은 한국은 무리하게 미국 골밑을 노리다가 슛·블로킹은 물론 패스·미스의 액운이 겹쳤다。 그러나 한국은 全美愛의 과감한 플레이로 41—40까지 따라 붙었으나、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朴良桂가 게임을 착실히 풀어나가고 全美愛、金和順이 맹활약、9분40초를남기고 全美愛의 슛으로 49—49 다시타이를 만든후 金和順의 슛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한국은 한번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았고 朴贊淑 全美愛가 골밑을잘지켜 68—64로 역전승했다。

◇최종일 전적

한국 68 (34—27, 34—37) 64 미국
(7승) (6승1패)

자유중국청팀 65 (25—34, 40—23) 57 네덜란드

자유중국백팀 77 (41—31, 36—30) 61 뉴질랜드

◇동순위=①한국7승 ②미국6승1패 ③자유중국청4승3패 ④서독4승3패 ⑤네덜란드4승3패(이상골득실차) ⑥자유중국백팀2승5패 ⑦뉴질랜드1승6패 ⑧캐나다8패

해설

존즈컵 차지했으나…

長技인 중거리슛의 불발로 당황

골밑 攻略作戰 적중한셈

美팀은 주니어들…合訓기간 짧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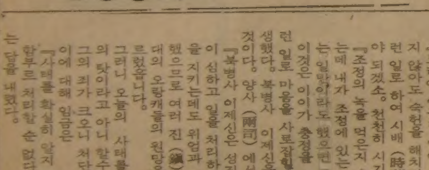
새로개편된 한국여자농구 대표팀이 14일폐막된 제5회 존즈배쟁탈국제여자농구대회서 우승을 차지하기는했지만 과거어느대표팀보다도 불안한요소를많이안고있었다。 그간 한국의 전통적인강점은 중거리슛의 적중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거리슛이 이번 대회처럼 불안하고 기복이 심했던 예는 드물었다。 이런가운데서나마 한국이 우승을 거둘수있었던것은 포워드와 센터진의활약 덕분이었다。 승부의 구심점이 중거리슛에서 상대방 골밑을 공략하는 공격 패턴으로 바뀐것이 이번대회를 우승으로이끈 원동력이 되었고 여자농구대표팀의 새로운 컬러로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패턴이 앞으로 장신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국제무대서 얼마만큼 위력을 보여줄수있느냐는 아직미지수다。 美國은 이번 대회에 주니어선수들을 파견했고、그나마 일주일간의 짧은 연습기간을 갖고 대회에 출전했다。 장기간 합숙훈련 끝에 대회에 임한 한국과는 여건이 다르다。 美國과 같은 급조팀에게 한국이 고전한것은 가드진의 약세로 포워드와 센터에 공격을의존했기때문에 미국의 장신파워에 눌렸다。

대표팀의 가장큰 문제점은 가드진。 鄭美羅와 洪惠蘭을 주전으로 기용했지만 맞지않는 치자였다。 洪惠蘭은 팀을 이끌어갈만한 순발력과 재치가 약간 모자라는 편이었고 중거리슛 역시 위력을 보이지 못했다。 鄭美羅는 본래 게임·리더가 아니라 중거리 슈터。 장신 앞에서 鄭의 슛은 거의 불발이었고 한두 게임에서 호조를 보였지만 승부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다。

鄭과 洪 대신 중거리슛이 비교적 정확한 洪英順과 어시스트가 뛰어난 朴良桂를 기용했는데 洪英順의 슛 역시 기복이 심했다。 단지 朴良桂만이 고비에서등장、포워드와 센터진의공격력을원활하게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한국이 미국、네덜란드등 장신과 고전할때 위기를 건져준 숨은 공로자는 朴良桂였다고 할수있다。 洪惠蘭 鄭美羅 洪英順 朴良桂등 4명의 가드선수 가운데 슛、어시스트、게임을 이끌어가는 재치등 3박자를 제대로 갖춘 선수가 없었던것이 한국팀의 고민이다。 【閔炳宅기자】

流星의 賦 〈13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⑱

경기(京畿) 이하 오도(五道)에 군사(軍士)의 징발이 시작되었다。 북방육진(北方六鎭)의 수비를위해 많은 군사를 필요로했던 것이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나라가 태평한지 오래되어서 백성이 전쟁을 모르다가 갑자기 이런일을 당했으므로 동리에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릴 지경이었다』 (昇平日久民不知兵粹有是役哭相聞) 라고 되어있다。

이에 병조판서 이이 (兵曹判書 李珥) 는

『자원하여 육진 수비에나가 만 3년 복무하는자는 서얼이라도 과거에 오르는 것을 허(許)하고 천인(賤人)들을 양민(良民)으로 올려주도록하자』 고 제의했다。

나라가 군사를 징발할 때면 언제나당하는것은 서출(庶出)이고 천인들이었다。 양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노비를 공출하거나 가난한집 사람들을 사서 내거나하는 것이 상예(常例)로 되어있었다。 그럴바에야 자원형식(自願形式)을 취하도록 하여 그들의 지위를 개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것이 이이의 속셈이었다。 이이는 서출의 사람들과 천인들이 구박받고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던 터였다。

그러나 조종의 중신들은 이이의 제안을 거절했다。 강상(綱常)을 함부로 변개할 수 없다는것이 그 이유였다。 이이는 친우 성혼(成渾)을 향해 장탄식을 했다。

『어떻게 모두들 그처럼 옹졸하단 말인가。 인성(人性)에 적서(嫡庶)의 차가 있을 까닭이 없고、인품에 귀천(貴賤)의 별(別)이 있을리 없는 것이어늘 한갓 구차한 법을 조작하여 사람을 얽어맨다는 것은 인생의 도리가 아닌 것인데、어째서 이 이치를 모른단 말인간』

이에 성혼이 답했다。

『도리에 어긋난 일이 어찌 그 문제뿐이리오。 그러지 않아도 숙헌을 해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그런 일로 하여 시배(時輩)들에게 통서리를 주어서야 되겠소。 천천히 시기를 기다립시다』

『조정의 녹을 먹은지 수십년。 이렇다 할 일을 못했는데 내자 조정에 있는 동안 서얼의 대우를 개선하는일이라도 했으면 했소』

이것은 이이가 충정을 표현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마음을 사로잡힐순 없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북병사 이제신을 탄핵하는 물의가 나타난 것이다。 양사(兩司)에서 아뢰길

『북병사 이제신은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며 자만심이 심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질서가 없다。 북방 국경을 지키는데도 위엄과 사나움만으로 민(民)을 대했으므로 여러 진(鎭)의 인심이 이반하고、변방지대의 오랑캐들의 원망을사서 급기야 배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니 오늘의 사태를 있게 한 것은 오로지 이제신의 탓이라고 아니 할수 없읍니다。 나라를 욕되게 한 그의 죄가 크오니 처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임금은

『사태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변지에가 있는 장수를 함부로 처리할 순 없다。 좀 더 두고 보자』

는 답을 내렸다。

모닥불이 외의生 〈149〉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⑮8

『참 재미있다。 그래서? 난 그런데가 여간 궁금한게 아냐。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어울리는 일이 벌어지는지。 남자가 아니니까 술마시러 갈수는 없고、그렇다고 그런데 취직할만한 용기도 없고…남자들은 그럼 만나자마자 반말인가?』

『반말이 다 뭐예요。 거기서는 누구도 우리같은 애들을 인격을 가진 한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설사 그렇대도 재미없구요。 더러는 점잖은 패들이 없지도 않지만、그런패와 어울리면 우리도 기분이 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기 싫은데요』

미간을 좁히며 영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내 유치한 호기심을 비난하는듯했고、나는 좀 부끄러운 느낌이었다。

노영지가 다시 말했다。

『그런 건 체험할 필요도 없지만、알필요도 없어요。 삶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깨끗이 부숴 버리는데니까요』

그녀는 참혹한 표정을 지었고、눈에는 눈물까지 글썽해졌다。 잠깐 나는 몸둘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어느 쪽에선가 맹수의 부르짖음 소리가 끝에 예리한 금속음(金屬音)을 거느리며 들려왔다。

『감옥、시체、가스실、유형지、처형장(處刑場)、빈민굴、창녀촌、전장(戰場)…삶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부숴버리는곳들말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환상만 부서지는 것이 아녜요。 관념까지도… 사는일이란 어떻게보면 관념을 쌓아가는 과정 아녜요? 그런데 그런것들마저도 블록담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남는것은 동물적인 삶이랄까 박제(剝製)상태의 삶이되는거죠』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할건 아니잖아? 영지가전에는 일이라고 표현했던것처럼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뭐』

『아녜요。 일에는 성취감이라든가、그런게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유미는 일찍 그것을 깨우쳤어요。 갠 정릉 사건이 있자마자 그만두었거든요』

『아참、그 얘기를 하다가 그만 심각해져 버렸군。 그래서 둘이는도망친거야?』

『네。 그런데 유미가 그만 불을 낸 거예요』

『불? 불을 내다니?』

『그랬어요。 전、방갈로에 닿자 마자 숲으로 해서 도망쳤거든요。 끈이 끊어지면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어둬서 찾을 수가 있었어야죠。 곧 그가 뒤쫓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뛰어서 유미가 말한 동네까지 내려왔어요。 동네 어귀에서 유미를기다렸는데、통금이 지나고 삼십 분이 지나도록 유미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유미를 만나려고 다시 산장쪽으로 올라가는데 유미가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얘길 들으니까 유미는 남자와 함께 방까지 들어갔대요。 빠져 나오기는 해야겠는데 구실을 붙일 것은 없고、그래서 방이 춥다고 했대요。 불을 좀 더 때야겠다고。 간신히 빠져나와 아궁이에 솔가루를 좀 때다가 백이고 뭐고 다 방에 놓아 둔 채 도망쳤는데、도망쳐 내려오다가 보니까 나무청에 불이 붙어 환하게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달려 올라가 불이야、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고、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나와 불을 끄는 동안 또 도망쳐 내려온 거래요。 유미랑 나는 아래 쪽 여인숙에 방을 하나 얻어 오들오들 떨며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이튿날 아침 유미하고 나는 숲 속으로 해서 방갈로까지 가 보았어요。 신발도 찾을 겸 화재 피해가 얼마 쯤 되나 여간 궁금했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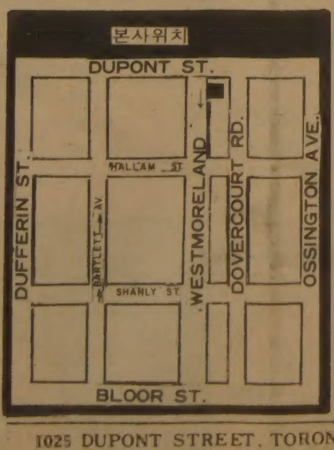
우편파업을 극복합시다

■ 본사는 파업중에라도 신문을 매일 발행, 주3일 식품점등에 배달하여 독자들께서 무료 픽업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 파업이 끝남과 동시 그간 못보내드렸던 신문을 전부 우송합니다.

★ 정상근무를 계속하는 본사는 특히 파업기간중 수금이 안돼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광고료및 구독료등을 인근 식품점에 맡겨 두시거나 본사 근처를 지나시는 길에 잠간 들려서 내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읍니다.
어려운 때인 만큼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신문 계속 발행
광고 계속 접수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무료픽업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동부)
〃 (서부)
한밭식품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 국 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CAROL'S JEWELERY & GIFTS

시내 MALL안에 있는 조그만 보석및 GIFT점입니다. 다이아몬드및 불로바· 세이코 시계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무슨 종류의 보석(특히 다이아몬드) 이든 최저가격으로 주문도 해 드립니다.

특히 시계, 보석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시계 · 보석 선물용 gift등 무슨 상담이든 환영하오며, 스페샬 가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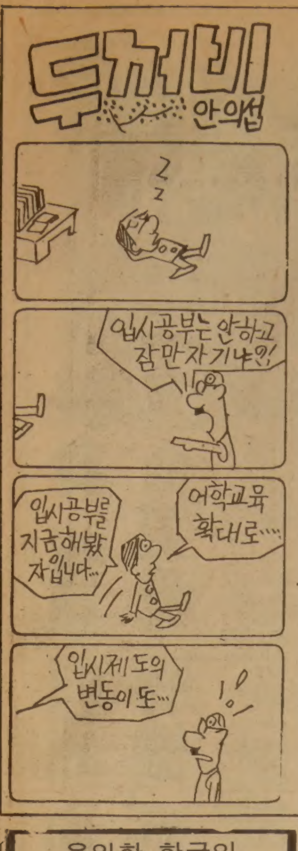
교민을 위하여 봉사코저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 상 길 올림

345 BLOOR ST. E.
BLOOR & SHERBOURN에서
약간 서쪽MALL안에
(GREENWIN SGUARE)

월~수 오전10시~오후7시
목~금 오전10~오후9시
토 오전10시~오후6시

B) 967-3449, R) 429-1392



洛東江상류 汚染시켜
악취·파리끓어 衛生위협

【太白=聯】 전국최대의 광산도시인 太白市에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지가 없어 黃池川과 鐵岩川이 시청에서 내다버리는 분뇨와 쓰레기로 악취를풍기며 썩어가고있다. 太白市는 현재 자이분뇨처리장으로 黃池川인上長洞하천과 文曲洞하천 및 鐵岩川인 鋼店洞천변농경지등 3개소에 지름20m정도의 웅덩이를파놓고 수거한 분뇨를 이곳에 갖다버려 넘치는 분뇨가 냇물로 흘러들어가고있을뿐아니라 비가오면 모두떠내려가 천장5백81㎞의 洛東江최상류를 크게 오염시키고있다.

시설비 10억없어 終末處理場설치못해

또 太白시에는 일정한 쓰레기매립지도 없어 시청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모두 黃池川과 鐵岩川에 버려져 매년 하상이 높아지는것과 함께 분뇨와 같이 썩어가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모기에 시달려 여름철위생에 커다란위협을 주고있다.

太白市는 인구12만명에 2만3천3백여가구가 있으나 이중 2천3백여가구만 정화조가 설치됐을뿐 2만1천여가구가 재래식 변소이다. 이에따라 太白市의 분뇨수거는 太白시청과 太白의용소방대 太白위생사등 3개단체에서 4대의 수거차량으로하루 1백8톤정도를 수거, 3개하천간이처리장에 버리고 있으며 이 자이처리장이 넘치면 야산이나 냇가에 그대로 버리고 있다.

또 쓰레기는 시청에서 차량6대와 리어카 25대로 하루평균 1백여톤을 수거, 천변에 마구버리고 있다.

이와함께 禾田洞 黃池洞 鐵岩洞 하천변 주택가에서는 분뇨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 黃池川의 오염은 심각할정도이다.

또 黃池川과 鐵岩川이 합류하는 명승지 구문소유원지는 검은 탄가루물과 떠내려온 오물로 폐쇄된지 오래다.

이에대해 太白市 청소계장 陳吉雄씨(41)는 『1백톤규모의 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면 약10억원이 소요돼 시승격전인 읍당시부터 계속도당국에 건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어쩔수없이 야산이나 냇가에 버리는것만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事故방지 기관사에 尹子重장관이 포상

尹子重교통부장관은 15일상오 교통부회의실에서 열차사고를 사전에방지한 大邱기관차사무소소속 기관사 申相萬씨(55) 鄭南鉉씨(29) 牙浦선로반 선로원 林宋萬씨(37)와 權春植씨(36)등 4명에게 장관표창과 상금5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또 安昌和철도청장도 이날 사고방지를도운 가관조사 趙春植씨(26)와 郭璟煥씨(27)등 2명에게 청장표창과함께 상금2만원을 주었다.

구독신청은 533-2361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高校지리책 많은부분誤記
大邱高溫 높새現象탓설명
釜山師大 文勝義교수지적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있는 국토지리 교과서 내용에 잘못된부분이 많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釜山師大 지학과 文勝義교수(41)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문계고등학교 국토지리교과서의 모순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과서 30페이지~52페이지까지 「기후와 식생」이라는 항목중 16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것.

文교수는 이교과서 31페이지에서 大邱의 여름고온현상을 높새현상 때문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분지고유의 특성이지 높새현상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文교수는 또 44페이지에 한여름을 설명하면서 「한여름에 북태평양기단(氣團)의 일시적인 후퇴와 한랭 전선의 통과 되…」 부분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 한여름에 한랭전선이 통과할수없다고 밝혔다.

文교수는 이어 43, 44, 45페이지에 게재된 일기도에는 고·저기압의 표시가없고 전선의 표시조차 없는 것도있어 대부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교과서를 집필한 서울大師大 李炳坤교수는 『기후현상에 관해 여러가지 학설또는 견해가있지만 일반화된 정설을기준으로 집필했다』면서 『새로운 학설이 학계에서정설로 인정되면 교과서내용도 고칠수있다』고 밝혔다.

숙정자 司法書士 취업
兪대법원장 곧 施行令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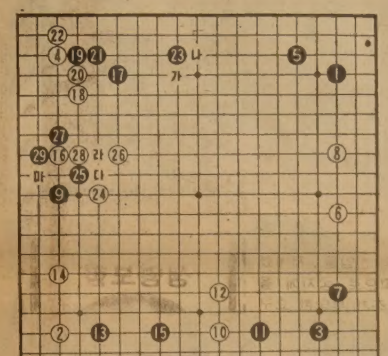
【大邱=聯】兪泰興대법원장은 14일『빠른시일안에 사법서사법 시행령을고쳐 지난해 공무원숙정때 퇴직한 전국법원·검찰직공무원중 사법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서사로 취업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도순시차 이날 大邱고등법원을 방문한 兪대법원장은 『법원·검찰직공무원중 4급이상 10년이상 근속퇴직공무원 38명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정부의취업제한 조치로 사법서사취업인가 신청기일을넘겨 취업을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을구제하기위해 현재의사법서사법 시행령중 사법서사의 취업인가 신청기간인 6개월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38명은 지난해 8월과 금년1월 각지방법원에 두차례에걸쳐 사법서사 취업인가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2譜 1~29　(갈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名人) 曺薰鉉〈1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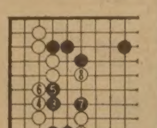
趙治勳名人의 바둑, 특히 名人타이틀획득한 도전대국은 그어느판이거나 실각한이상을주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徐도전자가 약속이라도 했듯이 그렇지않고서야 초반포석부터 曺名人이 바둑의 복기·검토처럼 두어갈리가없다. 하기야 나름대로 도중에서 약간씩의변화는 시도했지만 본보에올려 보더라도 黑17까지 똑같은식이 되어버렸다.

단지黑23은 「가」혹은 「나」자리를 주장하는기사도 있기는했으나, 그러면 또다른 바둑이 되었을것이니 여기서는 논외.

그리고 계속해서 白24에 모자를씌워 黑25로 째고 白26까지도 일본名人戰제5국과 똑같은형이다.

그런데 여기서 曺名人의 기발한 수가 나왔다. 바로黑27. 어쩌면 趙名人의 바둑을 연구할때 생각해둔수일까.

日本名人戰의 再版?



그러나 국후평에서 이수는 가장 좋은 수라고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는 대竹名人이 당시 처럼 참고도의 黑1이하로 수습하는것이 타당하다는것이다.

그는 여하간 黑27이면 白28은 당연. 다음 黑29가 또 이한수격이었다.

軍部 世代교체強行
金正日에 盲從촉구

北傀는 13일 黨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현재 북괴군부내에 世代교체가 단행돼 새로운 世代가 北傀軍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제작映畫 오仁川 로동신문서도 트집

美ABC記者 피살

【베이루트14日AP=聯】

英語교육 이렇게 고치자

> 「벙어리영어교육」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全斗煥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현재의 영어교육을 대폭 수술키로했고, 문교부에서도 이를위한 개선연구작업에 14일 착수했다. 우리영어교육이잘못돼있다는건 이미 우리사회의 통념. 중·고등학교6년에 대학4년까지 10년을 영어와 씨름하고서도 정작 외국인을 만나면 피해버리고 싶다는게 거의 대부분의 실토이기도 하다. 청소년시절의10년동안 엄청난노력과 정력을 쏟으면서도 의사전달조차 어려운 반벙어리로 끝나고마는 우리영어교육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중·고등학교현장의학습실태, 그리고 교과과정의 현실을 통해 그원인과 대책을 진단해본다.

무엇이 問題인가

중·고등학교교과과정을보면 우리나라교육지는6년과정동안 모두 7백68시간의영어수업을 받는것으로 돼있다. 연간 수업일수를 32주로잡고 학년주당 4시간씩 1년에 1백28시간을 공부하는 셈이다.

이같은 수업시간은 국어·수학과목과 함께 교과과정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대입시험의 비중으로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교과서의 구성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4가지 기능을 조화있게 습득시킨다는 목표아래 매단원마다 ①내용이해②발음③어구④문법⑤회화연습⑥연습문제의순으로 짜여져있다.

각단원은 독해를위한 주문장과 대화로 구성돼있으나 중학1, 2학년에는 대화체가 많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독해문장의 비중이 커진다.

영어교육을 교과서의 구성면에서만 보면 흠을 잡을데가 없다고 할수있다. 영어교육의 목표가 지금 문제가 돼있는 「듣고 말하기」에 집중돼있으며 교과서역시 그 비중에 따라 편성돼있다고 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말하기」가 가장 안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선 학습현장인 교실에서 교과서를 변태적으로 가르치고 있기때문이라 할수있다.

각단원의 6개학습항목중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데만치중하고 회화연습과 발음은언제나 무시되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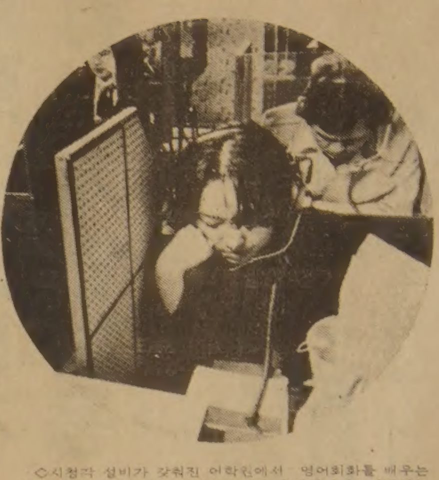
해석과문법학습만을 강조하는것은 우리영어교육의 오래된 병폐다.

會話가르칠 教師없어
시험도 문법·해석위주 객관식출제

교육방법의 問題

讀解·會話力조화가 이상적
한편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大學교육에지장

다년간 학관영어를 교습한 경험이 있는 劉完彬교수(明知大)는 우리영어교육은「문법번역식교육」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그에 의하면외국어교습방법은▲문법번역식교수법▲직접교수법▲구두교수법▲인지적교수법등4가지로 나뉘지나 문법번역식교수법이 해방이후 우리교육이 줄곧 채택해온 방법이며 이로인해 번역이외의 기능은 완전히 무시돼 왔다는것.



◇시청각 설비가 갖춰진 어학원에서 영어회화를 배우는 학원생들. 「반벙어리 영어교육」이 문제되지만 자질있는 교사, 최소한의시설등 갖춰야한것도 많은게 현실이다.

科學事동 기자재 日서 科技財團에

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이사장 尹日善)은 한일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을 통해 과학차(Science Mobile Car)와 각종 과학기자재를 전달받았다.

이 과학차엔 TVR영사기, 컬러TV, 현미경, 천체망원경, 과학수사기등 20여종의 과학기자재가 고루 갖추어져있다. 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은 앞으로 이과학차를 주로 전국의 벽지를 순회하며 실험실습과 시청각교육을 통한 청소년과학교육에 이용할 계획이다.

科學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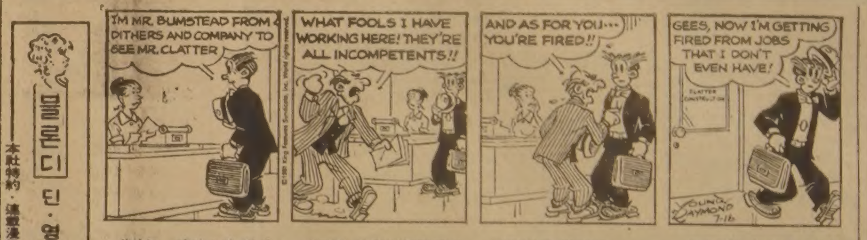
외솔打字機 곧市販

高大 崔東植교수팀이 개발한 2벌식 한글 외솔 타자기가 곧 시판된다.

英全域 평온
런던일부除外

【런던15日AFP=聯】

ANOC總會 밀라노서개최



"저는 디머스씨 회사에서 온 범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클래터씨를 만나고 싶습니다만"
"이런 얼간이를하구내가 여기서 일을하고있으니 원참! 모두가 무능한자들뿐이야!"
"자네도 말이야… 파면이야!!"
"제길할, 일해보지도않은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다니!"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

봉디아 친목회

브라질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지나간 옛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매년 갖는 친목회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아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때 : 1981년 7월25일(토요일)
　　11시까지
장소 : SUNNY BROOK PARK
　　(작년과 동일장소) Snak Bar뒷편

※음식은 각자 지참하시고 오락과 풍부한 상품이 준비되었읍니다.

친 목 회 장
성 용 창

〈 금주의 스페샬 〉

Coca Cola / Hi-C / Sprite	10온스 can	$ 5.99
Moirs Bag캔디	24"×25¢	3.45
Garbage캔디	〃	3.75
Life-savers Lolli-pops(jar)	96×10¢	6.25
Lollies(swizzle)	160×5¢	5.09
Life-savers캔디	24×30¢	4.45
Rown-Tree킹·싸이즈 바	24×59¢	9.49
넬슨 Thick바—슈프림, 저시	36×55¢	13.69
Tottee(오렌지) crispeptes	12'	11.88
Tart-N- Tiny	24'×25¢	3.85
Gobstoppers	24×25¢	3.85
YNS Cigars파이프(CHEWS)	48×10¢	2.89
Bazooka 껌	36×10¢	2.25
키스코 드링크	24×30¢	4.39
넬슨 패밀리 바	24×99¢	14.69
Hickory스틱(B.B.Q. 스타터)		67¢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金東春을 찾습니다

①아르젠티나에서 약5년간 거주
②가족사항 : 본인 약40세, 부인 최금숙 약35세 아들 김자룡 7세
③사기행각 : 아르젠티나 중심가에서 옷가게를 개업하면서 약1년동안 많은 교포로부터 부터 많은 사채와 물품, 자기앞 수표(원주민과의 거래)약50만불 이상의 상당한 거액을 해결치 않고 도망.

알젠틴에서 한국교포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나쁠뿐아니라, 특히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고자하는 우리 이민교포들에게 크나큰 적이오니, 앞으로 어디서 살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게 모르고 협조하고 계신분이나 거처를 아시는 분은 공관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81년7월14일
피해자대표 일동